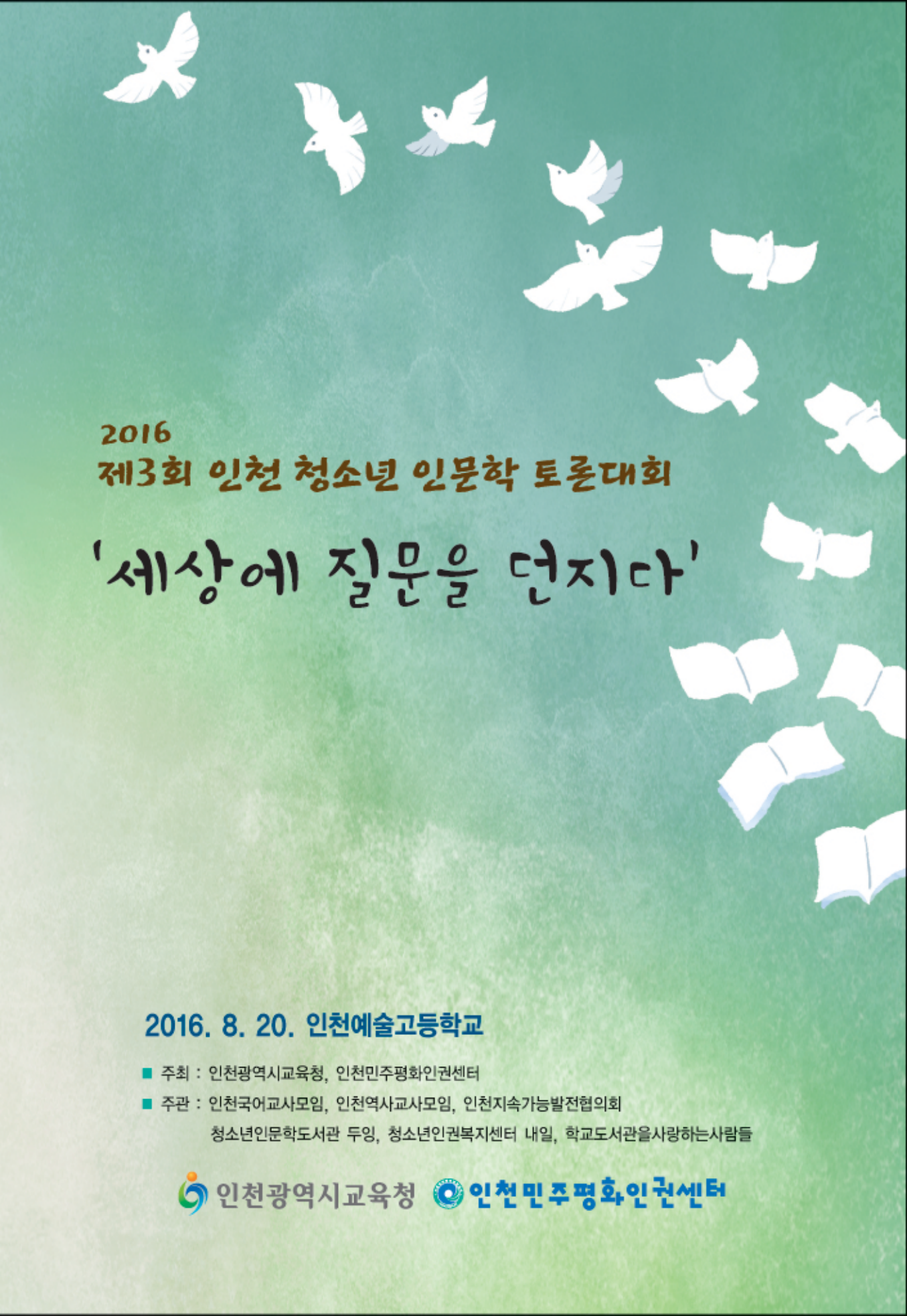




2016

제3회 인천 청소년 인문학 토론회

'세상에 질문을 던지다'

2016. 8. 20. 인천예술고등학교

■ 주최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 주관 : 인천국어교사모임, 인천역사교사모임,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청소년인문학도서관 두임,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학교도서관을사랑하는사람들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는

인천지역 소중한 민주화운동 역사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고,
민주시민교육 및 활동을 통해 민주·평화·인권의 가치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성숙한 시민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주요사업



민주화운동관련 자료 수집과
보존, 전시, 편찬 사업



민주화운동 계승과
희생자 추모사업



민주·평화·인권증진을 위한
행사 및 교육사업



남북평화증진사업

협조 요청드립니다

인천 민주화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기록을 기증받습니다.

1. 소식지, 기관지, 스크랩기사, 유인물, 팜플릿, 호소문 등
2. 사진, 필름, 포스터, 그림, 대자보 등
3. 영상 비디오테이프, 노래 테이프, CD 등
4. 깃발, 현수막, 머리띠, 현판, 단체 마춤옷, 뱃지, 걸개그림 등 당시 사용하던 기구 등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우.22154 인천 남구 경인로 334-17, 1층

전화 : 032-862-5353 전송 : 032-862-5352

이메일 : idph@hanmail.net 홈페이지 : www.idph.kr



목 차

1. 대회 취지	02
2. 캠프 개요	04
3. 추진일정	05
4. 주제도서, 저자소개	06
5. 운영위원회	09
6. 지도교사 워크숍	10
7. 토론방식 소개	11
8. 본 캠프	
- 캠프 일정	14
- 개회식	15
- 저자와의 북 토크	16
- 공감의 길	17
- 소통의 길	18
- 폐회식	19
- 참가학교 현황	20
- 100자 소감문	26
9. 운영위원 소감	69

1 대회취지

‘인천 청소년 인문학 토론대회’를 준비하며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는 2016년 8월 20일 인천예술고등학교에서 ‘2016 제3회 인천 청소년 인문학토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대회는 인천국어교사모임, 인천역사교사모임,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청소년인문학도서관두링,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학교도서관을사랑하는사람들모임이 같이 준비한 대회입니다.

인천의 청소년(고등학생) 독서단체를 대상으로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독서토론의 전형을 제시하고자 하는 ‘인천 청소년 인문학 토론대회’는 우리의 책 읽기 풍토나 교육 현실에 비추어볼 때,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인천 청소년 인문학 토론대회’는 우리 청소년들이 책 읽는 사람, 질문할 줄 아는 사람, 토론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책을 읽고, 생각의 힘을 기르고, 그런 생각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인천 청소년 인문학 토론대회’는 우리의 삶과 사회를 성찰할 수 있는 작은 계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는 일, 타인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일, 세상을 넓게 보면서도 작은 것까지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마음을 기르는 일, 가치를 창조하고 그 의미를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인천 청소년 인문학 토론대회’는 어떤 기능, 기술보다 소통과 나눔, 생각과 실천 등을 더욱 소중한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경쟁적 방식이 아니라 비경쟁적 방식으로 대회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넷째 ‘인천 청소년 인문학 토론대회’는 인간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학문인 인문학이 근원적으로 ‘더불어 잘 사는 삶’을 지향하고 있듯이 이 대회를 준비하는 사람들과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더불어 행복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소망을 담아 대회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세상에 질문을 던지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다양한 질문을 던져 그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회 운영위원들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대회 주제를 놓고 함께 읽을 만한 책 3권을 정합니다. 도서 선정의 원칙은 첫째, 대회의 주제를 아우르면서, 둘째 문학, 역사, 철학, 그리고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분야의 책들을 고루 포함하며, 셋째 교사와 청소년들이 함께 읽고 토론할 만한 책이어야 하고, 넷째 청소년의 독서능력을 고양시킬 수 있는 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의 주제 도서로는 강명관의 <이 외로운 사람들아>, 엄기호의 <공부중독>, 김익중의 <한국탈핵> 등 3권을 선정했습니다.

'인천 청소년 인문학 토론대회'의 가장 큰 특징은 '비경쟁 방식의 독서토론'이라는 것입니다. 선택도서 읽기(만남의 길), 선택도서 토론(공감의 길), 전체도서 토론(소통의 길)을 전개합니다.

이런 토론 방식을 선택한 생각의 바탕에는 "지식과 지혜가 열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 사이의 토론을 통해 만들어 진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대회에 참가하는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질문하는 힘, 다른 사람의 발언을 경청하는 태도, 처음 보는 사람과도 함께 어울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열린 마음입니다.

인천 곳곳에서 모인 청소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온 종일 토론하는 일은 정말 멋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대회에 참여하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추억과 값진 경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대회에 참여하는 학생과 교사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대회도 더욱 발전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 토론대회 개요

■ 대 회 명 : 2016 제3회 인천 청소년 인문학 토론대회

■ 주 제 : ‘세상에 질문을 던지다’

■ 주제도서

책 제목	저 자	분 야	소속
이 외로운 사람들아	강 명 관	철학인문	부산대학교 교수
공부 중독	엄 기 호	사회과학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사회학자
한국 탈핵	김 익 중	자연과학	동국대학교 교수

■ 일 시 : 2016. 8. 20. (토) 09:00 ~ 19:00

■ 장 소 : 인천예술고등학교

■ 참가단체 : 인천지역 고교 독서동아리 및 학교밖 청소년 단체 동아리 30개 팀

■ 주 최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 주 관 : 인천국어교사모임, 인천역사교사모임,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청소년인문학도서관 두잉,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학교도서관을 사랑하는 사람들

3 추진일정

- 2016. 4. 6(수) : 1차 운영위원회
- 2016. 4. 27(수) : 2차 운영위원회 (대회 주제 및 저자 선정)
- 2016. 4. 28(화) ~ 5. 13(금) : 저자 섭외
- 2016. 5. 10(화) : 3차 운영위원회(대회 일정 확정)
- 2016. 5. 18(수) ~ 5. 27(금) : 신청서 접수
- 2016. 5. 30(월) : 4차 운영위원회(신청서 심사 - 30개팀 선정)
- 2016. 6. 3(금) : 참가팀 발표(지도교사 개별 통보)
- 2016. 6. 17(목) : 지도교사 워크숍
- 2016. 7. 12(화) : 5차 운영위원회
- 2016. 7. 31(일) : 참가팀별 3권의 주제도서 팀당 2개 질문 제출
- 2016. 8. 7(일) : 참가팀을 소개할 수 있는 사진 5~6장 제출(센터 홈페이지)
- 2016. 8. 16(화) : 6차 운영위원회
- 2016. 8. 20(토) : 2016 제3회 인천 청소년 인문학 토론대회 개최
- 2016. 8. 30(화) : 평가회의
- 2016. 8. 31(수) : 참가자(작가, 학생, 교사, 동아리별) 후기 제출
- 2016. 9월 중 : 운영위원 소감문 제출

4 주제도서 및 저자 소개

강명관의 『이 외로운 사람들아』

한문학자 강명관 교수의 세 번째 집문집이다. 여기에 실린 글은 모두 옛 글을 제재로 삼아 쓴 것들이다. 조선시대 문헌을 읽고, 글을 쓰고, 가르치는 것이 날마다의 일인 저자가 옛글을 공부하는 틈틈이 떠오르는 생각들을 꾸밈없이 쓰고 엮은 60여 편의 결과물이 이 책이다.

불평등한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면서도 사회적 악자를 향한 따스한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저자는 옛 문헌 속 장삼이사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오늘날 어두운 현실을 직설적으로 논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곧 옛날과 현실의 교차를 통해 역사가 죽어버린 과거가 아닌 현대사회에서 살아 숨 쉬는 생명과도 같음을 알려줌으로써 현대인들에게 일상에서 겪는 문제들의 근본 원인을 성찰하게 만든다.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바뀌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지점부터 철저하게 따져보고 궁리해보는 것이 변화의 시작점이 아닐까?라고 저자는 질문을 던진다.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묵직하지만 거침없고, 날카롭지만 호방한 한문학자. 그는 고전을 읽고 고전에 바탕을 둔 책을 쓰지만, '지금-이곳'과 소통하는 인문학자이다. 사유의 시작은 한문학이지만, 그 끝은 인간을 향해 있다. 그동안 아무도 기억하지 않은 역사, 너무 일상적이고 사소해 묻혀버린 역사를 색다른 시각으로 풀어내 인물 독자들에게 새로운 상상력을 선물해 왔다. 2008년 제8회 지훈상 국학상 부문 수상, 2010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간행물문화대상을 받았다.

엄기호의 『공부 중독』

저자는 이 책에서 하지현 선생과 함께 우리에게 공통의 것으로 주어진 동시대성을 공부를 화두로 찾아보려고 했다. 공부가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를 어떤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려고 했다. 이 동시대성을 자각하는 동시대인을 지향하기 위해서 때로는 세대론이라는 방편을 쓰기도 한다. 세대론은 한 특정 시기에 태어난 동년배들의 문화적 특성을 집단화하지만 그 집단화는 중국에는 동시대인이라는 보다 큰 보편성 속에서 융해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동시대성의 발견과 그 동시대성에 공동으로 대결하는 동시대인의 형성이기 때문이다.



사회학자.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1971년에 태어나 울산 귀퉁이에 있는 시골에서 자랐다. 2000년부터 국제연대운동을 하면서 낯선 것을 만나 배우는 것과 사람을 평등하게 둘러앉게 하는 '모름'의 중요성을 배웠다.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묻고 또 묻는 것이 이번 생의 이유라고 여긴다. 삶이 인과적으로 구성되어 분석될 수 있다기보다는 삶이란 우연이며 글과 말은 그 아이러니와 역설을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한다. 펴낸 책으로 『닥쳐라, 세계화』, 『아무도 남을 돌보지 마라』,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닌란 말인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 『교사도 학교가 두렵다』, 『단속사회』 등이 있다.

김익중의 『한국탈핵』

후쿠시마 사태는 사고 이후 지금 2년 반이 지나갔지만, 여전히 수습 전망은 안개 속이다. 그동안 매일 300~400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 인정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까지 사고 수습 노력은 뭐 하나 순조롭게 진전되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다. 후쿠시마 사태는 결국 핵이라는 것은 그것이 군사용이든 민생용이든 인간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는 실례가 되고 있다. 답답한 것은, 체르노빌 혹은 후쿠시마라는 대참사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에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의 노력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원자력은 위험하며, 비경제적이며, 반환경적이며,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주며, 무지의 상징이며, 세계 에너지 산업 동향과는 정반대 방향임을 보여준다. 한국탈핵은 가능하며, 세계가 이미 그 길로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1960년 생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의학과 미생물학을 공부했다. 동국대 의대 교수로 재직하던 중 2009년 경주환경운동연합을 통하여 반핵운동에 입문하였다. 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를 계기로 전반적인 반핵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2010년에는 경주핵안전지대를 조직하였고, 2011년에는 새로 출범한 탈핵에너지 교수모임의 집행위원장, 반핵의사회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국회의 추천을 받아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의 사고 확률을 0퍼센트로 낮추는 방법은 탈핵뿐이라고 판단하는 그는 한국도 탈핵이 가능하며, 세계적 추세를 따르는 것이 그 길이라고 역설한다.

5 운영위원회

■ 대회 운영위원

소 속	성 명	직 위
인천광역시교육청	이성희	정책기획조정담당 장학관
인천광역시교육청	박근수	주무관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이은주	사무국장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지은	팀장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김희선	사무국장
청소년 인문학도서관 두잉	홍나리	사무국장
인천국어교사모임	임성빈	교 사
인천역사교사모임	이윤구	교 사
인천역사교사모임	구자순	교 사
인천역사교사모임	이유용	교 사
학교 도서관을 사랑하는 사람들	김명순	교 사
학교 도서관을 사랑하는 사람들	박진희	교 사
학교도서관을 사랑하는 사람들	안미림	교 사
학교도서관을 사랑하는 사람들	허우정	교 사

6 지도교사 워크숍

- 목 적 : 토론대회 취지 및 토론방식 설명
- 일 시 : 2016. 6. 17. 오후 2시 30분 ~ 5시
- 장 소 : 인천광역시 교육청
- 참가인원 : 37명

지도교사 : 28명 대회운영위원 : 8명 센터 : 1명

- 일 정

시간	소요시간	내용	담당
14:00~14:30	30분	등록	홍나리(두잉), 김희선(내일)
14:30~15:00	30분	참가자 소개	이은주(민주평화인권센터)
15:00~15:40	40분	토론대회 취지 및 일정 설명	김명순(인천예고 교사)
15:40~15:50	10분	휴식	
15:50~16:20	30분	비경쟁방식 토론방법 안내	임성빈(계산고 교사)
16:20~16:40	20분	행정사항 안내 (질문 제출, 학생 사회자 신청 등)	
16:40~17:00	20분	질의 응답	
17:00		폐회	

7 토론방식 소개

상호협력형 비경쟁방식 토론

어떤 기능, 기술보다 소통과 나눔, 생각과 실천 등을 더욱 소중한 가치로 여긴다. 승패를 가리는 토론대회가 아닌 참가한 구성원들이 같은 책을 읽고 거기서 질문을 만들어 내고,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는 다른 사람의 발언을 경청하고 그 질문에서 또 다른 질문을 만들어 내면서 생각을 더욱 깊고 넓게 하는 과정을 되풀이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토론이 경쟁이 아닌 협력의 과정으로 나아간다. 함께 어울려 생각을 나누는 과정을 소중히 하는 토론 방식을 지향한다.

○ 과 정 ○

공감의 길

》》》》》

소통의 길



■ 공감의 길



순서		소요 시간		내 용
저자 인사		5	13:00~13:05	저자의 간단한 저서 안내 및 인사
제 1 주 제 질 문	강의 1	15	13:05~13:20	〈제1 주제〉에 대해 저자가 강의를 함
	모둠 토의 질문 만들기	15	13:20~13:35	위의 강의에 대해 모둠별로 토론을 하면서 심화된 새로운 질문을 하나 만들
	대표 질문 만들기	15	13:35~13:50	모둠별로 만든 질문을 발표하고, 사회자 진행으로 전체 토론하면서 대표 질문 하나로 정리함
	강의 2	15	13:50~14:05	대표질문에 대해 저자가 답변 강의를 함
휴식 시간		10	14:05~14:15	휴 식
제 2 주 제 질 문	강의 1	15	14:15~14:30	〈제2 주제〉에 대해 저자가 강의를 함
	모둠 토의 질문 만들기	15	14:30~14:45	위의 강의에 대해 모둠별로 토론을 하면서 심화된 새로운 질문을 하나 만들
	대표 질문 만들기	15	14:45~15:00	모둠별로 만든 질문을 발표하고, 사회자 진행으로 전체 토론하면서 대표 질문 하나로 정리함
	강의 2	15	15:00~15:15	대표질문에 대해 저자가 답변 강의를 함
개별 질의 응답		15	15:15~15:30	저자에게 궁금한 사항을 자유롭게 질문함

저자에게 보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저자에게 직접 듣고, 이에 대해 새로운 질문을 다시 만드는 과정을 통해 저자와 대화하고 공감하는 과정이다. 3개의 주제도서별로 정해진 각 교실에 들어가서 '제1주제 질문'에 대한 답변 강의를 듣는다. 한 권의 주제도서별로 10모둠이 구성된다. 저자의 '강의 1'이 끝난 후 모둠별로 토론하고 새로운 질문을 만든다. 새로 만들어진 10개의 질문을 전체 토론과정을 통해 하나로 만든다. 선정된 질문에 대해 다시 저자의 답변(강의 2)을 듣는다. 이 과정은 두 번 되풀이 한다. 이 후 개별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진다. 이 과정이 모두 끝난 후에는 '소통의 길'에서 더 확산시키고 싶은 질문을 선정하고, 각 질문에 대한 토론마당을 이끌어 갈 방장을 선정한다. 선정된 방장은 다음에 이어지는 '소통의 길'을 위한 준비를 한다.

■ 소통의 길



순서	소요 시간		내 용
자유토론1	20	16:40~17:00	자유토론을 하고, 이 토론을 통해 새로운 명제나 질문을 도출함
학생 이동	5	17:00~17:05	다른 토론마당으로 이동함
자유토론2	20	17:05~17:25	자유토론을 하고, 이 토론을 통해 새로운 명제나 질문을 도출함
학생 이동	5	17:25~17:30	다른 토론마당으로 이동함
자유토론3	20	17:30~17:50	자유토론을 하고, 이 토론을 통해 새로운 명제나 질문을 도출함

‘공감의 길’에서 저자와 공감한 의미 있는 내용을 다른 주제 도서를 택한 친구들과 한 번 더 소통(토론)하면서 의미를 확산해보는 과정이다.

‘공감의 길’ 마지막 과정에서 선정한 질문을 가지고 방장이 토론마당의 주제를 적은 팻말을 세우고, 토론자들을 기다린다. 자리는 10명이 앉을 정도로 준비한다.

토론자들은 필기구를 지참하여 토론의 내용을 정리한다. 방장은 토론에서 만들어진 결론을 명제나 질문의 형식으로 정리하여 팻말에 적는다. 자유토론은 20분씩 3회 실시한다. 자유토론의 결과물을 전시하고 관람하는 시간을 갖고, 마지막으로 저자들의 마무리 발언을 듣는다.

8 본 대회

■ 대회 일정



시간	소요시간	내용	장소
09:00~09:30	30'	등 록	강당
09:30~10:00	30'	개회식 및 대회 안내	강당
10:00~11:00	60'	저자와 함께하는 북 토크	강당
11:00~11:10	10'	이동 시간	
11:10~12:00	50'	공동체 놀이	3층
12:00~13:00	60'	점심식사	
13:00~15:30	150'	'공감의 길'	3층
		운영위원 · 지도교사 간담회	3층
15:30~15:40	10'	휴 식	
15:40~16:30	50'	'소통의 길' 질문 만들기	3층
		저자 · 지도교사 간담회	3층
16:30~16:40	10'	휴 식	
16:40~17:50	70'	'소통의 길'	3층
17:50~18:30	40'	100자 소감문 쓰기, 저자 · 학생 총평, 기념 촬영	3층

■ 등록 및 개회식



■ 저자와의 북 토크



■ 공감의 길



■ 소통의 길 및 토론질문 만들기



2016 제3회
인천 청소년 인문학 토론대회
'세상에 질문을 던지다'

■ 폐회식



■ 참가팀 소개 및 현황

인천논현고 책 읽는 청춘

교사 정소영
학생 유혜수 학생 이채원
학생 송정현 학생 윤채린

도림고 도림 아카데미아

교사 성현옥
학생 신정환 학생 이지환
학생 조용민 학생 김민규

문일여고 배중사영(杯中蛇影)

교사 박수미
학생 윤수진 학생 안주연
학생 윤지나 학생 채성희

삼산고 질문 완성

교사 남영주
학생 국정근 학생 박용빈
학생 유지수 학생 정민영

세일고 다빈치

교사 민한규
학생 권혁준 학생 송유선
학생 김상민 학생 박해빈

신명여고 오로나민 신

교사 안미림
학생 김선형 학생 이은서
학생 최수연 학생 한아름

인천신현고 류케이온

교사 이다정
학생 박현진 학생 신다현
학생 신주혜 학생 이희주

인성여고 도토리

교사 박경현
학생 유윤지 학생 엄유진
학생 강민서 학생 신유성

인하사대부고 인문사회 토론모임

교사 노 훈
학생 김의환 학생 김영훈
학생 신재경 학생 전민세

인천초은고 파랑

교사 김시내
학생 김규리 학생 고윤정
학생 최유진 학생 김윤주

강화여고 담장

교사 김민정
학생 김주연 학생 소예린
학생 문희진 학생 최정현

광성고 아우토반

교사 박지은
학생 강성민 학생 김주찬
학생 최성준 학생 지민기

동인천고 스마트리더

교사 이문주
학생 류창현 학생 양한진
학생 방명호 학생 황승우

부광고 흰수염 고래

교사 양선영
학생 김수혁 학생 김지훈
학생 신현규 학생 하태현

신송고 아르케

교사 신복숙
학생 김태형 학생 이원형
학생 한건희 학생 김관혁

인천영선고 독독

교사 김예원
학생 노국빈 학생 손 진
학생 이준명 학생 최규민

옥련여고 에피스테메

교사 이윤경
학생 김서희 학생 김예지
학생 김소연 학생 이수진

인천예고 다독다독

교사 김명순
학생 이상은 학생 이해민
학생 이다혜 학생 고지수

인천청라고 미르

교사 구자순
학생 김진우 학생 김세름
학생 조재건 학생 이정수

가림고 어울림

교사 채희정
학생 이 슬 학생 류상곤
학생 백기원 학생 박진영

가좌고 Start up

교사 이유웅
 학생 남궁소운 학생 양은지
 학생 이선경 학생 문지환

계양고 문돌이들

교사 위향숙
 학생 임지수 학생 박준영
 학생 정성민 학생 현진환

인천만수고 MM(Mouth Master)

교사 정희광
 학생 이진형 학생 강유민
 학생 김민규 학생 조재환

박문여고 파죽지세

교사 김승관
 학생 김혜림 학생 박서영
 학생 박채린 학생 임지연

서운고 끝장토론

교사 강진영
 학생 남유진 학생 백선희
 학생 이규빈 학생 신하늘

안남고 질문창문

교사 장현희
 학생 김예심 학생 박동우
 학생 이장근 학생 정다영

연수고 너울가지

교사 오현주
 학생 강진수 학생 김지섭
 학생 이채성 학생 홍준형

인항고 순수청년

교사 박윤희
 학생 신동희 학생 안효재
 학생 노주영 학생 이준서

청소년인문학도서관 두잉

교사 홍나리
 학생 윤병진 학생 전해민
 학생 강민경 학생 김예원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교사 김희선
 학생 차혜성 학생 정현지
 학생 박혜량 학생 맹주엽

■ 「공감의 길」 조 편성표

1 공부중독

- 1조 유혜수(논현고) 신정환(도림고) 윤수진(문일여고) 국정근(삼산고)
2조 권혁준(세일고) 김선형(신명여고) 김의환(인하사대부고) 김규리(초은고)
3조 박용빈(삼산고) 최유진(초은고) 박현진(신현고) 김영훈(인하사대부고)
4조 이채원(논현고) 이지환(도림고) 안주연(문일여고) 김윤주(초은고)
5조 김상민(세일고) 유윤지(인성여고) 신재경(인하사대부고) 고윤정(초은고)
6조 송정현(논현고) 조용민(도림고) 이은서(신명여고) 전민세(인하사대부고)
7조 윤채린(논현고) 김민규(도림고) 박해빈(세일고) 최수연(신명여고)
8조 윤지나(문일여고) 유지수(삼산고) 신다현(신현고) 엄유진(인성여고)
9조 채성희(문일여고) 정민영(삼산고) 강민서(인성여고) 신주혜(신현고)
10조 송유선(세일고) 신유성(인성여고) 한아름(신명여고) 이희주(신현고)

■ 「공감의 길」 토론 주제

♣ 주제도서 공부 중독

♣ 제1주제 질문

'공부 중독' 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청소년들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 제2주제 질문

한국적인 현실 속에서, 선생님의 '공부 중독' 의 메시지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요?

2 이 외로운 사람들아

- 1조 김주연(강화여고) 강성민(광성고) 김서희(옥련여고) 김진우(청라고)
- 2조 류창현(동인천고) 김수혁(부광고) 강진수(연수고) 이혜민(인천예고)
- 3조 김태형(신송고) 김예지(옥련여고) 노국빈(영선고) 이상은(인천예고)
- 4조 소예린(강화여고) 양한진(동인천고) 김소연(옥련여고) 김세름(청라고)
- 5조 김주찬(광성고) 김지훈(부광고) 이수진(옥련여고) 이다혜(인천예고)
- 6조 신현규(부광고) 이원형(신송고) 문희진(강화여고) 김지섭(연수고)
- 7조 한건희(신송고) 손 진(영선고) 최정현(강화여고) 홍준형(연수고)
- 8조 최성준(광성고) 방명호(동인천고) 고지수(인천예고) 조재건(청라고)
- 9조 황승우(동인천고) 하태현(부광고) 이채성(연수고) 이준명(영선고)
- 10조 지민기(광성고) 김관혁(신송고) 최규민(영선고) 이정수(청라고)

■ 「공감의 길」 토론 주제

♣ 주제도서 이 외로운 사람들아

♣ 제1주제 질문

'오늘날 우리 사회를 '헬조선' 이라고들 말하는데,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요?

♣ 제2주제 질문

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나요?

3 한국탈핵

- 1조 이 슬(가림고) 임지수(계양고) 이진형(만수고) 정다영(안남고)
- 2조 문지환(가좌고) 김혜림(박문여고) 남유진(서운고) 정현지(내일)
- 3조 신동희(인향고) 강민경(두잉) 박진영(가림고) 이선경(가좌고)
- 4조 김예섬(안남고) 양은지(가좌고) 박준영(계양고) 강유민(만수고)
- 5조 류상곤(가림고) 박서영(박문여고) 이규빈(서운고) 박혜랑(내일)
- 6조 박채린(박문여고) 정성민(계양고) 김민규(만수고) 백선희(서운고)
- 7조 현진환(계양고) 조재환(만수고) 임지연(박문여고) 안효재(인향고)
- 8조 남궁소윤(가좌고) 윤병진(두잉) 신하늘(서운고) 박동우(안남고)
- 9조 이장근(안남고) 김예원(두잉) 차혜성(내일) 노주영(인향고)
- 10조 백기원(가림고) 전해민(두잉) 이준서(인향고) 맹주엽(내일)

■ 「공감의 길」 토론 주제

♣ 주제도서 한국 탈핵

♣ 제1주제 질문

'탈핵'에 관한 교수님의 대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 제2주제 질문

'탈핵'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16
제3회 인천 청소년 인문학 토론대회

100자 소감문

공부중독

학교 및 참가단체 : 인하사대부교	이름 : 김 의 한
나는 작년에 이 대회에 참가했었다. 작년에는 무가 료의 잘 몰라서 말을 잘 못했지만 이번 대회는 두 번째인 만큼 성공적이었다. 내년에도 오고 싶지만 그 3이라서 힘들 것 같다. 임기는 선생님 정말 멋있다. 선생님의 말씀이 참 귀중한 것 같다.	

학교 및 참가단체 : 삼산고등학교	이름 : 박용빈
대규모 토론대회는 처음이었으나 완전^{매우} 알찬 구성이었다. 본래 말을 많이 하지 않는 나로서 약간 걱정되었지만 의외로 망설임이 없었고, 내 생각을 마음껏 펼칠 수 있어 기뻐했다. 임기도 선생님의 강연도 기뻐박수를 치고 싶어하는 명망인이었다. 세상에 질문을 던져 내 마음에 커한 화를 낸 건 대외였다.	

학교 및 참가단체 : 인천사대부교 유메이론 팀	이름 : 신 주 혜
교내 토론대의 '유메이론'은 현재 수많은 토론과 대회는 있지만 이렇게 직접 질문을 받기고 세상의 위대한 과학자 같이 긴장한 건 처음이었을 것 같다. 토론대회를 준비하며 내가 느낀 인상은 내용으로 어느 정도는 토론문을 읽었다. 시련의 책은 굉장히 생생하며 읽은 동차이 원문으로 새겨지며 진리는 작성하며 나 스스로 성찰을 많이 했다. '나'라 생각한 것은 본래의 지난 시간들을 두는 한시 세사, 사리는 본, 시에는 본 더 큰 세사는 같이 되었다. 임기도 교수님 '공부중독' 정의를 교수님의 '한국 판독' 강연은 교수님의 '아 나는 사립사' 연설이 있었을 것 같은 이 세 위는 토론이 아니라 메타에 이르면 진부함이처럼 천공의 성으로 '죽어'었다. 어떤 이런 강한 경향을 만들어주는 세 제비, 대의 관계가 성립할, 최근 사립사는 다정다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18년 생화학 토론대리. 이제 앞으로 마음에 새겨 더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학교 및 참가단체 : 인성예고 성환지	이름 : 엄유진
자유로운 형식의 토론대화의 해설이 부담없이 있는데 덕분에 훨씬 다른 학교친구들보다 토론을 하고 책의 저자들과 심도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우리학교친구들하고만 토론을 하다가 어떤 당위론 토론을 해보니 더 넓은 견해와 개방을 얻어준 것 같아 좋았다.	

학교 및 참가단체 : 인하사대 복교	이름 : 김영준
원래 토론토의를 별로 안좋아 하고 해본적도 없었는데 책 저자와 만나서 많은 이야기들 하고 문제를 풀고 토론을 하게 너무 재밌었다.	

학교 및 참가단체 : 인성예고 당포리	이름 : 신유서
책을 읽고 공정한 정도 읽었고 저자의 생각을 듣고 싶은 내용도 많이 읽었는데 오늘 밤에 한 해설의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보고 많은 것을 들으면서 큰 영감이 되었다.	
같이서 읽으니 원문이 너무 의미있었다.	

학교 및 참가단체 : 인성예고 고등학교 도리리	이름 : 유은지
책을 읽고 작가님과의 소통을 통해 궁금했던 점에 대해 들 수 있어서 단순히 읽고 읽힌 다른 책 보다 좀 더 명확히, 오래 기억날 것 같다.	
다른 학과도 교류하고, 각자의 의견을 내고 토론하며 생각지도 못한 의견들을 들으며 한두가지의 전제로 막혀있던 내 주관과 생각을 시원하게 풀어 폭넓은 견해를 갖출 수 있게 해준 값진 경험이었다 ㄹㄹ	

학교 및 참가단체 : 인성여자 고등학교 - 도토리

이름 : 김민서

세상에 중생을 넘기다 라는 주제에 깊숙히 숨은 곳에서 참여하게 된 문물지배한 내가 배 려운
하고 많은가 나는 생명이 들어 해마다. 무한히 끝까지 참여하는 생명의 모든 대항과 과정이 된
내면이었다. 무한히 끝난 생명의 끝까지 끝까지 내면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한번 더 두드려 주기를 통해 내가 강하게 숨은 것은 무엇인지, 사물의 어딘가에 숨겨져 있지
한 것 깨닫게 하는 것은 제마 되었다.

학교 및 참가단체 : 도림고, 도림 아카데미	이름 : 조용민
3권의 책을 가장 인상깊게 읽었던 '공부습득'이 대해서 토론하고 질문하고 그리고 저자에게 직접 답을 받고 실력을 늘릴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책들에서 아파하는 부분을 손쉽게 직접 손이나 다 경험하고 고난한 것만 있었던 것 같다. 저자 정현 주저로 토론하고 그 토론을 읽고서 다시 한층 생생한 구절을 접하는 과정이 책 내용이 대해서 더 깊게 생각했고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아서 좋았다.	
내가 지정한 책이 아닌 것은 '소름끼칠'이란 토론 프로그램을 통해 고민하고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뇌만으로도 수월할 수 있어서 좋았다.	

학교 및 참가단체 : 신명여고	요나민심	이름 : 이 은서
책을 읽고 토론을 하고, 저자와 소통을 한다는 점이 매력있게 다가왔다. 그저 저자는 책만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공백속'의 저자 엄기호 선생님을 만나고 저자도 사람이고 훌륭한 만화라는 걸 알게 되었다. 다른 학생들과 토론을 하여 내 사고가 성장함을 느꼈다. 대화를 준비하면서 같이 보는 학교 학생들과도 토론 했지만 다른 학교에서 온 토론 친구들과 토론을 하는 것도 재밌다고 생각했다.		

학교 및 참가단체 : 도림고등학교 - 도림아카데미	이름 : 신경환
처음에 독서후 토론회라는 소리를 듣고 학교의 대표로 나가는 데 있어서 좋은 생각은 생각은 가려지면 어떻게 고민은 했는데 나중에 (이기철선생) 비평평석의 토론회라는 소리를 듣고 하루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담감이 사라져서 개성 이곳에 와서 현업은 가려진 다른학교와의 토론 하게 되서 좀 더 다양한 생각을 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존경스런데 같은 눈과 귀를 더하 할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의미가 컸습니다.)	

학교 및 참가단체 : 신명여자고등학교	이름 : 한아름
2016년 초2년 2학년 토론대회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부분은 저자님만의 강의가 아닌 정말 필요로 하는 내용에 대해 강의를 해주신 토론입니다. 2월 공부 중독의 사회자를 맡아 진행 했었는데. 이 계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로 이룰 때는 나쁜 생각하기 않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배려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솔직히 이 대회에 참가한다고 할 때 어떤 친구한테 주워서 이유 말고 못 할까 두려웠는데 서로 협력하여 진행을 만들어나가면서 내 강의를 보다 감동하게끔 경감할 수 있었다. 가장 좋았던 부분은 요즘 사람들이 사회. 정치. 문화라는 오직 유혹을 쫓는데 몰두하며 저인 나와 상관없는 세상이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사회 변화는 합을 깨거나 생각했는데 의외로 의식이 깨어 있는 친구들이 밝아 앞으로 나도 더 열심히 활동해야 겠다고 생각했다.	

학교 및 참가단체 : 인천논현고등학교 - 책읽는문화	이름 : 유혜주
비평평 토론대회가 처음 많았는지 많았는지 이런 기분을 통해 제대로 알게 된 것 같다. 같은 고등학 교 학생들 안에서 벗어나 다른 학생들과 토론을 하니 새로웠고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도움이 된 것 같다. 특히 마지막 소정의 정복전에서 적극적으로 토론하는 모습이 인상깊었고 많은 자극을 받을 수 있었다. 논리정연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들을 보면서 비평평석의 필요성도 느끼고 토론 예외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다. 정말 재미있고 유익했고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학교 및 참가단체 : 동천고 (책을 읽는 청춘)	이름 : 윤채린
‘토론다운 토론을 한 대회’라는 수식어 때문으로 깊이 있고 진지한 토론을 한 대회였다. 교를 희망하는 학생으로서, 수업의 발표 및 친구들의 의견을 들으며 교에 대해 진솔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자신의 흥미 분야에 끊임없이 공하여 책임감을 함양해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행동을 보여 나가는 열심에 노력해야 한다는 자를 받았다. 사회생활에 들어와 있는 군데에서 여러 영민 토론을 같이 한 친구들과 함께 이루어져 이 사회를 주도해 나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 예상하고 또 기대한다. 비행 토론의 길이 활성화되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길 바란다.	

학교 및 참가단체 : 인천상설고등학교 - 류게이온	이름 : 박 현민
토론대회라고 하면 작가는 딱딱하고 살벌한 분위기에서 경쟁을 하는 모습이 생각 되었다. 그런데 모든 참가한 이 토론대회는 내가 생각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며 하나의 결정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이 화목하고 즐거웠다. 어쩌면 이러한 과정이 토론의 궁극적 목표가 아닐까 느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나는 솔직하고 약함없이 당당하게 토론에 참여할 수 있었다. 비단 토론 뿐만 아니라 작자와의 북극극, 강연 등을 듣는 것도 굉장히 좋았다. 특히 원형의 에인드인 - 공백중 - 의 저자 ‘강박’ 작가님의 강연은 소중함을 느꼈고 지금까지도 가슴이 떨릴 정도로 인상 깊었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나한테 온것이 정말 감사하고 영광인 반면, 기회는 편지 못한 친구에게 대양될도 느껴졌다. 그만큼 나에게만 가치있고 값진 장면이었다.	

학교 및 참가단체 : 인천상설고등학교	이름 : 김규리
외국에서는 무엇이든 이렇듯만 이렇듯만 항상 우리 학생들과 같이하는 시간을 가지고 직접 경험하면서 배워가고 있었다. 학생들이 배워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빛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책을 같이 읽게 되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주:	

학교 및 참가단체 : 인천 초은 고등학교 - 파랑	이름 : 허 유진
이번 인문학 토론회에 오기 전에는 진지한 북독미에에 진행되는 토론이나 세상은 해가 갈수록 되었다. 하지만 내 생각과는 다르게 자유로움 불의에서 오는 아닌 동시에 가깝게 진행되었다. 우리는 서로 다른 학교에서도 우리의 학생들과 토론 주제를 주제에 대해 토의는 하고 생각을 모으는 활동을 진행했다. 우리는 '공부중독' 책을 위주로 토의로 하였다. 그 후에는 4개의 질문을 생각해 자유로운 토의 시간을 가졌다. '이 토론을 사춘기' '한국의사'에 관한 주제로 '항가학' 있어서 보다 적합한 주제이며 다양한 시각들과 만나며 질문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 밤에도 작년부터의 만남을 가지면서 내가 책에 대해 공감했던 점을 떠올릴 수 있는 계기로 거뤘다.	

학교 및 참가단체 : 도림고 / 도림 아카데미아	이름 : 이지환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비장쟁 토론이라 많이 긴장을 해서 그런지 말을 많이 못 한 것 같습니다. 우선은 책 3권을 읽고 토론을 해서 그런지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4중에도 다시 기회가 온다면 한번 더 참가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가분들 3명도 직접 볼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4중에 시간이 된다면 책 3권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고 싶습니다.	

학교 및 참가단체 : 문일여자고등학교 - 배중서영	이름 : 안주연
처음엔 '토론'이라는 단어에 긴장을 했지만, 내가 책을 읽으며 궁금했던 것들을 그 책을 쓰신 작가님께서 직접 대답을 해주셨던 것이 새로운 생전 경험이였다. 나는 영계작가님의 '공부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작가님의 독특한 의견, 그리고 토론과정에서 들었던 다른 화교관들의 의견을 들으며 공감을 하기도 했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되며 사고는 넓어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그리고 돌아다니며 내가 원하는 주제를 찾아 토론하는 방식은 새로웠고, 정말 만족스러웠다. 앞으로 인문지적 교육학생들이 세상의 의견을 나누고, 같이 있지 생각할 수 있는 대화가 많이 개워지면 좋겠다.	

학교 및 참가단체 : 인천고등학교 파랑	이름 : 고윤정
평소 책을 읽으면서 질문을 해 싶은 생각이 따로 들지 않았는데, 이번 토론대회를 계기로 친구들과 책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공유하면서 공유했던 점이 계속 생각나, 그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토론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 토론대회를 나가실 것이라 정말 떨렸지만 경쟁 방식이 아닌 비경쟁 방식의 토론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어 좋았다. 또 내가 읽은 책의 작가님들은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고, 작가님께 내가 궁금했던 점을 직접 여쭙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학교 및 참가단체 : 연세대학교	이름 : 권민서
대화에 처음 대해서 '신뢰' - '속도'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걱정된다. 다음 기회에 꼭 참여하고 싶다.	

학교 및 참가단체 : 영문고등학교 파랑	이름 : 강윤주
참가하기 전까지만 해도 토론이란 게 무슨 뜻인지 몰랐고, 나는 그저 책을 읽는 게 좋아. 하지만 토론이란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토론이란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토론이란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학교 및 참가단체 : 인화사대학교	이름 : 신재경
책에서 읽은 인물과 토론문을 통해 알게 되어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다시 책에서 보았다. 책에서는 물론 기억이 오래 기억되었다. 이번, 방학에 다시 강의를 할 때는 내 생각에 새로운 방법을 찾 찾았다. 토론 토론 특히 많은 * 학생들과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이런 것 꼭꼭 다시 하고 싶다.	

학교 및 참가단체 : 문일여자고등학교 (배움사업)	이름 : 차성희
작업 해왔고 읽고 제법으로 만나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책의 내용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아 무척 좋습니다. 공부를 할 때 등에서 평소 문이에게 공부만 해왔고 정말 '나'에 대해 알게 된 사람들도 별로 기억이 남았다는 것. 책만 읽고 있을 내가 정말 무지하게 것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학교생활 등에서 조금씩 가짜가 무척 적었는데,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지식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무척 좋았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리얼로 통해 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더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정말 좋습니다.	

학교 및 참가단체 : 삼산고등학교 (질문탐색)	이름 : 정민영
세권의 책을 읽고,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친구들과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질문을 도출하면서 소통 하는 방법을 배운 것 같아 새롭고, 책에서 심화된 저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좋았다.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다. 된 것 같아 뿌듯하고, 깊은 생각을 하며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서 더 나은 사회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경험에서 매우 인생길고 좋았다.	

학교 및 참가단체 : <u>상산고등학교</u>	이름 : <u>윤지수</u>
새롭게 읽었던 책의 지식과 경험 만나 새로운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무엇보다 이런 공부, 되게이지 않지 위해 이런 공부가 라면 내 삶에 좋은 움직임에 의의를 품게 되었다. 하고 싶은 공부를 계속 비워왔던 것은 아닐까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였다. 여전 여정 다들 열심히 보면서 알고 있던 지식이 맞아떨어지는 그 때 느꼈던 만족이 떠올랐다. 그 다음날까지 공부할까? 자신감을 위해 공부한 나에게 해답은 말이 인상적이다. (자신을 비교하는 공부를 하지 말라). 자유로움에 대해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였다. 나도 힘을 줄 수 있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면서 내 시야가 넓어지는 기쁨이 들었다. 한 학생이 '공부는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공부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인상적이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내가 진정한 공부가 된 것 같음 다짐한 것 같다.	

학교 및 참가단체 : <u>세명고 다문화</u>	이름 : <u>권현준</u>
오늘 아침 9:30에 '인문학 토론대회'장에 왔다. 처음에는 무얼 할지도 모르겠고 너무 낯설었는데 내가 '공부공부'라는 책을 읽고 가졌던 <u>생각을 스스로 공유할 수 있고 토론으로</u> 각자의 견해를 모아 하나의 결론으로 만드는 시간이 즐겁고 보람찼다. ↓ 공부에 관한 어려	

학교 및 참가단체 : <u>문일여자고등학교 (배움4명)</u>	이름 : <u>윤지나</u>
2018년 청소년 인문학 토크대회 '세상에 질문을 던지다'에 참여하면서 질문을 만드는 법을 더 잘 알게 되었고 질문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저자들의 강연들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책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또한 토론을 하면서 말하는 것 자체에 부담이 없게 되었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교 및 참가단체 : 인천신명여자고등학교	이름 : 조수연
책의 작가를 만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매우 독특한 경험이었다. 작가님께서는 책에 밝아있고 책에서 궁금했던 점들, 사적인 이야기들 모두 물어보고 이야기해보고 너무 신기하고 즐거운 경험이었다. 그리고 책을 모두 읽은 여권친구들마* 생각을 나누고 다양한 주제로 토론해보니 생각이 깊은 친구와 독특한 발상을 했던 친구들도 있어서 역시야 뜻깊은 경험이었다.	
+ '이치조를 사랑들아' 토론 중 남자의 시각치이가 드러나면 *출판관련문제에 대하여 극대화할 때 기억에 남았다.	

학교 및 참가단체 : 도림동초교	이름 : 김민규
'공감'을 쓴 김민규 교수의 강의를 장난으로 휴식했다. 결국 김민규가 만들어나가는 것은 누군가가 강해줄 것을 강요하며 공동체와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인성을 살리는 것 같았다.	
'공감의 길' 활동은 조 친구와 김민규의 강의를 듣고 생긴 외연을 정화하는 시간이었다. 내 생각은 사슴치 않고 말할 수 있고 친구들 생각은 공유할 수 있어서 아주 뜻깊은 추억이 될 것 같다.	

학교 및 참가단체 : 서울고등학교 다빈치	이름 : 송유선
여러분으로 신선한 느낌을 받은 행사였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같은 주제를 가지고 토의하고 질문을 던지는 부분과 그러한 과정을 거쳐 정해진 질문을 듣고 비평생각으로 토론을 벌인다는 점은 이때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서로 부딪치지 않고 각자의 의견을 피력하고 정화하여 새로운 사고방식과 지식을 접하는 것은 한 편으로는 감명깊게 다가왔고, 또 다른 한 편으로는 감명깊음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토론을 관망하시던 '평화론'의 저자인 압인수 교수님께서 공화 한4 아카데미 사상을 접목시켜 토론을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학교 및 참가단체 : 한양고 (책읽는 향촌)

이름 : 박기현

생각할만 강도를 맞고 그 강도에 생각을 태우는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같은 자재 태우기를 가진 강도를 만나 조도를 해줄것인지 거의 생각을 생각해보고
주행할 법도 배웠다. 태워서 자재의 강도를 줄 부딪고 하는 사람도 매우 적다
무엇인 것 같다. 자재의 강도를 경감하여 써 머신에 바인 고압으로 잘라낸
생각을 되돌아볼수 있었다. 이따금씩 생각을 하는게, 가짜, 거짓, 보람찬런 것들이
다들 또 어떤 것이 있다면, 생각해본다

학교 및 참가단체 : 안동대학교 - 학생회

이름 : 이근해 윤현

학교에서 인문도전대회에 나갈 희망들을 뽑는다고 해서, 망설임없이 신청했다. 사실, 저에게는 꼭두각시 친구들 있어서 가가 죽을까봐 걱정했었다. 그래도 책을 열심히 읽고 활동하게 되니 너무 부끄렀다. '공부중독'이라는 책을 읽고 내 꿈인 교사와 연관 지으면서 생각해볼 결재 과제해하는 인문학 분야라는 것을 깨달았다. 영하로 작가님과 함께 의견과 질문 나누면서 내 생각과 저의 수준이 끌어올릴 같은 느낌도 들었고, 친구의 미래인 학생들의 교육에 대해서 생각해볼 것 같아 질 수 밖에 없었다. 다음에 또 어떤 기회가 생기면, 다시 또 참가하고싶다

학교 및 참가단체 : 서울대학교 (AHEAD)

이름 : 김해민

1980 이공계 붕괴 앞둔데, 유엔 DS 체결했다. 인산탄 단속한다. 양로 시설 설치하고 사각등. 본로 다차
도로로 도로 확대한다. 황토 도로 건설다 이런 공약들이 있었다. 그러나 양민 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다차로 도로
건설. 양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양민들했다. 같은 자연 속에서 사는것이고 깨끗한 다차로 건설이 중요
정원화한 길을 양민들이 좋아해서 가는 다차로 길을 양민들 위한 스코이 아닌. 양민의 양을 위한 ~~양민들 위한~~
양민들이 좋아해서 가는 다차로 건설은 양민들 위한 스코이 아닌. 양민의 양을 위한 양민들 위한 스코이.
양민들이 좋아해서 가는 다차로 건설은 양민들 위한 스코이 아닌. 양민의 양을 위한 양민들 위한 스코이.

이 외로운 사람들아

학교 및 참가단체 : 경라고등학교 <미르>

이름 : 이정수

다른 지역 다른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경험을 했다. 책의 저자들과 함께 북토크도 하고,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오기 전에는, 낯선 사람들과 말 하기도 어려운데 토론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했지만 오히려 낯선 사람들과서 더 좋은 경험이었다. 우리 학교가 아닌 여러 학교의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토론을 너무나 좋아하고 아는 것도 많은 상대와 토론을 할 때는 '우연한 개구리'가 된 것 같았다. 그래도 그런 사람들에게 부족한 의견을 펼치면서 좀 더 성숙해진 것 같고, 실력도 많이 늘은 것 같아 뿌듯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카메라 정면에서 인터뷰하기도 했는데 그것 또한 좋은 경험이었다. 바쁜 일정에 우리를 위해 특하게 주신 세 분의 저자님들께 감사로 표현하고 이런 뜻깊은 행사가 꼭 이어지길 바란다.

학교 및 참가단체 : 인천에코 다독다독

이름 : 이상은

오늘 청사진 인문학 토크대화를 하면서 참 많이 웃었단 것 같다. 서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랐던 나는 완전한 타인과 공동의 문제를 가지고 각자의 경험을 말하느라 너무 재미있고 즐거웠던 것 같다. 나는 어떤 생각인지 몰랐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며 생각의 폭을 넓히기도 하고 타인과 논쟁할 때의 매너도 배웠던 것 같아서 오늘 하루동안 매우 값진 경험을 했다고 생각한다. 또 토론하는 방법을 교수님과 했던 강의들을 되짚어 봤을 때 참 즐거웠던 것 같다. 평소 책을 읽을 때는 ~~한번~~ 나만의 생각으로만 ~~독을~~ ~~배워~~ 배웠는데 오늘 어록은 ~~한번~~ ~~배워~~ 배워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며 책을 읽어볼까 ~~생각~~ ~~한다~~ 한다.



학교 및 참가단체 : 

이름 : 김민정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감성적이다.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정통이 아닌 다른 종류의 것을 믿어 주로 동양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 정통이 아니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더 적어졌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해답은 모든 것을 외우고, 그것을 어떻게든 복제
 하는 것이 정통성에 대한 더 정확한 접근
 일 것 같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늦추고서
 해답을 내놓을 수 있는 것 같다. 또한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학교 및 참가단체 : 인천예술고등학교 대동다동

이름 : 이다혜

책을 읽고 나서 그 책의 저자와 직접 만난다는 것도 큰지 않은 일이지만 저자와 만나 함께 이야기를 하고 그에 대한 질문을 직접하는 것은 더욱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꼭 해보실려면 말이다.

책을 읽으며 내 의견과 달랐던 부분을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수많은 학생들과 함께 토론하고 또 다른 실험된 질문을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할 수 있었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핵심적인 질문을 하는 학생들을 보며 내 시야는 더욱 넓어졌다.

다들 책을 읽을 수 있었다. 가장 재미있게 읽었던 부분은 '소통의 길'에서 우리가 직접 만든 토론제를 가지고 다른 학생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던 것이다. 토론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을 이겼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고 이렇게 한 주제를 집중 실험시키며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은 처음이었기에 더욱 흥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원천적으로 내 입장이론 과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충적으로 논쟁하며

모 자발적으로 각 입장을 수어 수용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보람있었다고 생각한다.



학교 및 참가단체 : 인천예고

이름 : 이혜민

처음하는 토론이라서 제대로 못해서 아쉬웠다. 토론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 주제에 대해 바로 생각하고 말로 풀어내는 과정이 어려웠다. 그래도 몇마디는 했었는데 다른 애들에 비하면 많이 부족했다. 그리고 토론을 하면서 사회와 정치에 관한 지식도 더 많이 길러야겠다고 생각하고 자신감을 좀 더 길러는 연습을 해야할 것 같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온다면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다. 그래도 교수님 강의를 들을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학교 및 참가단체 : 인천예술중학교

이름 : 권지수

교수님들의 복큰근도 재미있고, 개인적인 질문들도 재미있게 답변해주셔서 즐겁게 들었다.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 평소에 관심이 없었던 정치에 대해 생각해 보고,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 토론 ~~문제~~ ^{주제}에 서로 처음 보는 친구들과 소개도 하고 한 가지 주제로 이야기 하면서 의견을 나누고 모으는 방법, 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번 인문학 토론을 통해 사회에 대해 생각해 보고, 앞으로 내가 살아야 할 사회, 만들어야 할 사회를 여쭙으면서 진정한 ~~문제~~ ^{이슈}이 되는 것과 한결함 가져워진 것 같아 뿌듯했다.

학교 및 참가단체 : 동원초학교

이름 : 정은우

전혀 인문학 용어에 대해 이해가 안되어서 처음에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원래는 게임을 통해서 논리를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 같다. 그리고 나 혼자 책을 읽었을 때는 재미가 없었지만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가 되었다. 친구들과 토론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내가 생각해 보지 못한 부분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하여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지 못한 부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지 못한 부분} 좀 더 생각해 보지 못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나왔고, 토론을 통해 나눌 수 있는 것 같아 토론의 장점을 느낄 수 있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참여하고 싶다.

학교 및 참가단체 : 인천영선고등학교

이름 : 손진

솔직히 처음엔 조금까지 너무 이색해서 토론에 참여하기도
힘들었고, 그에 따라서 토론결과도 만족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만의 생각이 빠져있던 나를 작가님이 해체시켜
주어 큰 만족감이 들었다. 모듬고민하던 철학적인 주제를
제속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강의록을 들으니 머릿속이
정리되는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아지막에 진행한
'소용의길'이라는 프로그램이 내 유형과 잘 맞았고,
토론을 진행하며 내 의견을 피력할 때 느끼는 쾌감과
다른 친구들의 의견들 들을 때의 깊은 사유가
나를 이전과 다르게 한 것 같다. 보람찼다!

학교 및 참가단체 : 산송고

이름 : 김태형

인문에 관심이 많던 나였지만 책과 TV 매체로만 접했다.
이번 기회로 교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었고 직접
강의를 들으니 더욱 색다른 체험이었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직접 드러내주는 "힐 존선"이라는 표현에 대해
서 교수님의 전문적인 생각을 들었다. 그 동안 내가 상상해
오던 해결방법과 많이 다른 정말 새로운 접근 방식이었다. 다른
여러 내 또래 아이들의 많은 생각들 또한 그 동안의 면류이 느껴
지는 교수님의 생각도 공유하고, 질문도 발췌하여 나의 전문이 확
실히 높아진 듯한 생각이 들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국의 미래
를 짚어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 며칠만의 경험이었다.



학교 및 참가단체 :	연수고등학교	이름 :	강진수
읽은 책을 통해 곳곳에 숨은 비합리와 불표정등을 더 알고 상기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다. 또한 작가와 직접 만나서 읽은 책을 읽고 나서 궁금한 점도 물어볼 수 있어 뒤끝없이 깔끔하게 읽은 책을 다 소화시킨 느낌이었다. 만남 중에 인상깊은 것이 작가 분이 일보다는 노는 것에 열중하라고 하신 말이었다. 나보다 더 바쁘게 사는 사람도 불 많지만 그래도 나도 나를 바쁘게 산다고 생각했기에 공감도 되고 조금 위로받는 느낌도 들었던 것 같다.			

학교 및 참가단체 : 인천 영선고등학교	이름 : 최규민
대한민국 사회가 바뀔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해결됐다. 또한 조금 가능할까? 라는 의구심도 풀린다 풀었다. 모는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장법관 교수님, 여러 권구 증명들과 의견을 나누며 희망을 얻게 되었다. 모든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저출산 문제 토론의 사회자를 맡은 것이다. 다양한 아이들에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반박하고, 듣는 것을 보며 사회자로서도 보람을 느꼈다. 하지만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나 의 자신의 능력이 부족한 느낌도 들었다. 참가님들 뵈는 것도 좋았지만, 다양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었다.	

학교 및 참가단체 : 연원연고	이름 : 이준 명
나는 작년에 동아리에서 토론할때 측익을 원동경력이 있어 토론 토론을 결할수 있었을거라 생각했다.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과랑 말이다. 그러나 다행히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토론 자재들의 장의를 들으면서 책읽으면서 생각하기도 못했던것이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되니. 한결행의인원사들과 공통점을 알고도 별로 느낀게 없었지만 많은것 있었다. 그리고 책을 손자의 책을 쓰게된 계기도 몰라왔다. 이들 사립문제에 대해 자재들의 밑줄표 붙이고 학생들의 토론을 하며 나는 사립문제에 너무 과민적으로 잘게 생각했는지 이들을 계기로 잘게 생각하며 극단적이지 않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2022	

학교 및 참가단체 : 연수고	이름 : 이재성
처음 에북도크를 할 때 지루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힘 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북도크를 즐겼다. 저녁 우리는 그래서 집에 가려 했다, 편세로 집에 가다가 담양 선생님의 연락을 받았다. 다시 와서 활동을 하라보니 집에 가려 했던 것이 후회스러웠다. 교수님의 '원학'? 수업은 듣는 것이 너무 재밌었다, 경영학과를 치명하다보니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만만 생각했었다. 그러나 교수님의 강의는 내가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교수님은 무조건을 원하지고 지금 같은 일은 경쟁을 원하지 않았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사람도 말한 수 있는 정도인 수론이었으나 참가학생과 나의 질문에 대답해 주실 때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알려 주셨다. 교수님과의 토론은 끝내고 참가학생들과 토론은 다음날 때문에 생략함 수업이 아주 재미 있 어 서 아 니 다.	

학교 및 참가단체 : 연수고등학교	이름 : 김지섭
책을 읽고난 후에 질문을 준비했다. 토론하면서 주장을 알릴 생각이 있었었는데, 먼저 알린 다른 친구의 의견을 듣고난후, 내 의견을 대 생각해보았다. 이때 다른 친구의 의견을 귀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느낌을 의견안에 느꼈다. 책을 읽으며 내 생각을 계속계속 정리해봐도 좋았다. 예전에 책을 읽고 내용에 대해 얘기할 때, 작가가 책을 쓴 의도가 항상 궁금했었는데 오는 말의 북도크 시간을 통해 작가님들이 독자들에게 전하려는 의도를 알고 토론,토의해서 더욱 토론이 즐거웠다.	

학교 및 참가단체 : 인천 병인 고등학교	이름 : 조주인
처음에 토론에 다른 너무 어려웠고 40분 내서했다. 원공에는 그 40원칙만 40분 어려움이 끝이 다량 있었다. '공감의공' 시간에 작가님에 말씀에 공감 갔다. 특히 작가님게 인간은 실하게 위해서 태어난게 아니라고 말씀에 와 있었다. 이때 인 간 관 의 공 감 을 느 끼 게 했 어 서 하 고 학 생 들 이 현 실 적 이 지 는 말 을 감 안 다 는 생 각 이 들 었 다. 이대키시 그들이 꼭꼭되고 공감하고 나에게 큰 공부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었다. 공	

학교 및 참가단체 : 청라 고등학교

이름 : 조재건

올 때까지 어떤 활동이 이루어질까 많이 생각했다. 오늘은 많이 더웠다. 가자마자 물이 날 반겼다. 땀을 식힌 후 영상을 보고 바로 북토크를 진행했다. 내 생애 직접 책을 쓰신 작가님을 보는 것은 아주 신비로운 경험이었다. 다음은 낯선 애들과 친해지기 위해 공동체 놀이를 했다. 이렇게 친해지는 것은 처음인 것 같다. 다음 분론인 '공감의 길'의 부분에서는 모둠친구들과 머리를 맞대어 질문을 만들어본 것이 아주 좋았다. 다음은 '소통의 길' ~~다음은 책~~ 주제 책이 아닌 다른 책에 대해 토론을 하고 싶어 다른 교실로 가서 토론을 진행했다. 아이들의 거침없는 토론에 나는 반성했고 본 받아야 할 점을 잘 ~~가득~~ 잡았다.

학교 및 참가단체 : 강화여자고등학교 담장

이름 : 김주연

우선 ~~마지막~~ 마지막에 '소통의 길'이 가장 재밌었던 것 같다. ~~관객들에게는~~ 다른 사람과 생각을 나누는 것의 즐거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는 것 같다. 토론도 결국은 생각이 이어가는 거라 가치관이 반영되기 마련이다.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서로 다른 가치관을 쌓아올리며 지낸 사람들과의 편견 의견을 나누다 보니 나라는 전혀 다른 ~~생각~~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했다. '아,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생각~~ 생각하여 한 수 배워가야겠다는 느낌을 토론에 임했다. 3주제 모두 흥미롭고 토론도 활발해서 나의 생각을 내어놓는 것이 재미있었다. 하지만 결론 상대방의 의견을 비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정도 있지 않을까요?' 하며 말이 끝났다. 비정정식 토론은 사실 이번이 처음인데 긴장되지 않고 더 좋은 의견을 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

학교 및 참가단체 : 청라고 <미드>	이름 : 김진우
나는 오늘 토론활동의 사회자로서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사회를 보는 것도 처음인데 처음보는 친구를 맞이해서 더욱 떨렸지만 나 때문에 이 활동을 망치면 모두에게 민폐라는 생각이湧기를 내서 진행했다. 처음이라서 실수도 많았고 당황한 일도 많았지만 선생님의 도움과 친구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많은고비를 넘길기에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이런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신 선생님들과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 새로운 친구들과 교수님,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쳐 앓은 나에게도 정권을 해 주고 싶다.	

학교 및 참가단체 : 부평고등학교	이름 : 신현규
각분야에 참가했었는데 이만큼 참여하니 또 새로 알게 되었다. 공평을 이 위로는 사람들이 이 책 두권이 매우 공감이 가는 교수님의 발표 주역 지로 기억이 가 있다. 말씀하나하다가 마음이 와닿아 연필로 더 많은 글로 받아주 도록 하며 새로 친구들을 사귀고 서로 다져 이해하고 생각하는 걸들을 주고 받으며 많은 것을 알고 깨달아 오직 생활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들 여기 3학년이 되어 고등학교 시간 마지막 교과활동이라고 생각하니 아쉽고 했지만 이런 뜻깊은 활동이 마지막 활동이어서 기쁘다. 다른 후배들도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내가 느꼈 것들을 느껴보았으면 좋겠다.	

학교 및 참가단체 : 광성고등학교 이우성반	이름 : 최성환
토론대회를 계기로 책들을 읽고 책의 저자분들과 만나 책이 대해 더 관계 이해하며 교수님들의 강연을 직접들으며 깨달음을 얻었고 토론 방식이 조원 끼리 질문을 만들어 토론도 해보면서 이 부분을 읽고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도 해보고 교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이런 어떻게 대답 하십니까?하곤 생각하다 저 질문에 저절로 대답할 수도 있구나하곤 생각 했습니다. 이번이 토론대회에 참가해 많은 것들을 배워 재미있었습니다.	

학교 및 참가단체 : 강화여자고등학교 담장	이름 : 최정현
열심히 읽은 책의 주제는 직접 만나 이야기할 수 있었고, 심지어 장정도 같이 먹어서 너무나도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다. 또, 다른 학교 사랑들과 만나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곤 공유된 더 나은 사회를 함께 꿈꿀 수 있어서 좋았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토론할 수 있다는 것은 깨닫고, 내가 생각보다 많은 말이 되지 못해 아쉬웠다. 경쟁이 아닌 호 화합의 토론으로, 서로의 의견은 주먹질에 돌리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는 토론자의 모습들이 매우 보기 좋았다.	

학교 및 참가단체 : 강화여고 담장	이름 : 윤민
토론 막연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저자의 의 강의를 통해 해명판과 전문적인 지식이 첨가된 토론을 한 것이 인상깊었다. 나와 다른 의견도 있었고 비슷한 의견도 있었는데 그런 조화하는 과정들 통해 나의 부족한 점들에 대해 깨달을 수 있었다. 또한 사회에 어떻게 토론 하면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에 대해 있었고, 이런 친구들과 앞으로 꼭 사회에 대한 토론 하고 싶다. 그래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해결책, 직접 실천하는 자세에 대해 정말 이런 친구들과 앞으로 살아갈 우리 사회의 개선을 위해 조금만 실천이라도 해보고 싶다.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 여태까지 해본 토론대회 중 가장 인상이 깊은 토론대회였다.	

학교 및 참가단체 : 공성고등학교 (아무토론)	이름 : 지민기
'이 토론 사람들', '공부 공독', '한국 말투' 이라는 책을 쓰신 저자분들과 실제로 만나 질문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처음 만난 친구들과 자유토론을 해볼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 책에 교수님의 사진도 받고 사진도 찍고 친구들과 함께 식사도 했다. 내년에 토론 대회가 또 열린다면 친구들과 함께 다시 와서 대회에 참여하고 싶다. 정말 재미있고 유익한 토론 대회였다. 토론대회는 끝났지만 주제도서들을 집에 가서 다시 읽어봐야겠다 생각되었다.	

학교 및 참가단체 : 동인천고등학교 스마트러더

이름 : 양한권

오늘 독서 토론 대회에서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학교 친구들과
토론하며 내 생각과 다른 생각들을 듣고 나의 생각을
다시 한 번 정리하게 된 것 같다. 교수님이 이야기 하신 것을
듣고 옳다고 생각한 것도 있지만 내가 생각하게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르게 된 것 같다.
9 자리를 옮기면서 바로바로 색 다른 토론 주제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되어 내가 느끼기에는 나 자신의
영혼의 성장이 느껴질 것 같다.

학교 및 참가단체 : 신송고

이름 : 한건희

오늘 토론을 하면서 토론이 중요한 건 알았지만 자라는 잘 못지 않는 것 또한 깨달았습니다.
토론을 하다 보니 모둠의 어색함을 줄 방법도 모르고 분위기가 다운되니 토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것은 그 제 잘못입니다. 책을 제대로 못 읽어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도 강연 듣고 토론 들으면서 뭔가
배우게 되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토론을 잘 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로 보여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 및 참가단체 : 동인천 고등학교

이름 : 류창현

오늘 대회에서 다른 학교 친구들과 토론하며 내 생각과 다른
생각들을 듣고 질문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서 매우
보람 있었고 저자 선생님들의 조명이 내 삶에서 큰 교훈
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소통의 길 시간이 가장
좋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토론 주제를 강해서 자유롭게
내 의견을 피력했고 책을 읽고 책에 나오는 내용으로 토론 하
보고 싶었는데 하게 되어서 즐거웠다. 다음 번에도 참여하고
싶다.

학교 및 참가단체 : 광성고, 아우토반	이름 : 강성민
실제 책의 저자를 만나볼 수 있었던 새로운 경험이었다.	
다른 고등학교에 유석한 학생들을 만나보았다. 자유	
로운 일에도 불구하고 경쟁토론 같이 치열해졌다.	
저자, 즉 지식인은 실제로 만나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어떠한 인물이	
되어 이 사회를 바꾸어 나갈지를 느꼈다. 이런 대화는	
처음일수록 낯설었지만 편한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보이길 바란다. 좀 더 대한민국 사회의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많이 듣고 경험한	
국민이 되어야겠다. 생각인 들었다.	

학교 및 참가단체 : 옥천여자고등학교 에피스테메	이름 : 이수진
인문학공부를 시작하기 앞서 작가님들과 구체적이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전에 참가했던 톨대회는 학생들이 발언할 기회가 없어서 아쉬웠는데 이번 톨대회는 순종게도 원주지 원들이 선정되어 내가 사회자를 맡게 되었다. 처음에는 많이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다양한 질문과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진행하기 수월했고, 토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했다. 더욱 더 참여하고 성장하는 내 모습을 봐줄 수 있었고 비록에도 만약 톨대회가 열린다면 꼭 참가하고 싶다. 사회자들 진행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고 교류하며 더 나은 의견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더욱 톨대회의 의미에 대해 깨달아서 얻은 무언이었다. 소중한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특히 톨대회를 통해 광대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학교 및 참가단체 : 연수고등학교	이름 : 송준형
비록 내가 읽은 책이오른 반대로 착오고 다른 책과와 혼동 했지만, 원 사회 인삼 문제 로 토대로 쓴 책이라서 어렵지 않게 쉽게 이해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각과와 직접 만나 사회 문제를 토의 하고 나중엔 직접 시험까지 봤다. 다른 책들의 저자도 도 보고 사회적 불평등을 자세히 알게된 거였어. 정말로 좋았어. 인삼 끝났어 같은 이런 문제 면 이보다 같은 수준의 인삼으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건 정말 좋았다. 비록 이런 이런 긴시간에 몸이 힘들었다. 마음 많은 밑에서 맛이 많아 이런 부딪혔다.	

학교 및 참가단체 : 신송고	이름 : 이현영
개학하고 많은 친구와 이인 포록은 프로그래밍에 참여하기 되어 좋았 다. 특히 포록을 통해 질문을 유구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책과와 함께 듣고 도 논쟁성평을 들을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다. 이. 인문학 프로그래밍을 통해 평소 책 읽는 좋아했으나 그 책에 내용을 세박적으로 분석하는 경우는 많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발전할 수 있었다.	

학교 및 참가단체 : 청라 고등학교 드론 동아리	이름 : 김서름
내가 읽은 책들의 작가님을 만난다는것이 뭔가 연예인을 만나는 기쁨이었고 책을 읽고 내가 궁금했던걸을 직접 질문해보고 그에대한 정확한 답을 들을수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처음보는 친구들과 같이 도론했다는것이 긴장도 있 있 있지만 의외로 수월하게 진행되어서 재미있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다른 방들로 돌아다니면서 다른방친구들과 여러행동극으로 도론했고 모 같이 도론했는지못했는지 다른책 작가님 분들도 함께 도론했기 참여 해주시어 감사하고 유익한시간이었습니다.	

학교 및 참가단체 : 부곡고등학교	이름 : 하태현
사실 짧은 시간이 읽어보았지만, 친구들과 책에 대해 얘기해보고 생각은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금요일 이번 인문학 토론회를 통해 책의 내용에 대해 토론했고, 교수님과 질의응답 시간에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토론회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토론이 시작될 때, 토론장에서는 ... 교육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었는데 정말 다양한 관점들이 의견들 들릴 수 있고, 프랑스의 대입제도, 독일의 하이너 제도 등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너무 일찍 공부한 사회가 되어가는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배우고, 앞으로 우리네가 더욱 지게될 A자를 많이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및 참가단체 : 경희고등학교	이름 : 조예원
예전 한 주제에 대해 이렇게 많은 사건과 토론을 한 적이 없었다. 같은 주제였어도 정안 저저저 생각은 아니었다는 것 깨닫고, 한국 탕백과 같은 주제에서는 전문적인 거리를 바탕으로 이야기 할 수 있어 좋았다. 특히 이 외로운 사람들이 내 교육생의 강의를 들으며 내가 생각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었다. 더 많은 사회문제에 대해 더 많은 토론을 하고싶고, 그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 다만, 영유 많이 못하는데 것이 아쉽다. 다음 기회가 있다면 또 참가하고 싶다.	

학교 및 참가단체 : 동원고등학교	이름 : 방명호
학교에서 '퀴트북'이라는 동아리에 속해서, 책을 읽고 같은학교 친구들과 토론을 자주 하는데, 이렇게 다른 학교 토론을 하는 것은 처음였다. 같은 책을 읽고 어떻게 보는지 의문스러울 수 있거나 같은 생각을 했다. 책을 읽은 후에 책을 만날 수 없는 책가방을 통해 알게 됐는데, 이렇게 좋은 책을 만나서 정말 좋다. 저런 저런 생각과 토론을 통해 알게 됐는데, 이렇게 좋은 책을 만나서 정말 좋다. 저런 저런 생각과 토론을 통해 알게 됐는데, 이렇게 좋은 책을 만나서 정말 좋다. 저런 저런 생각과 토론을 통해 알게 됐는데, 이렇게 좋은 책을 만나서 정말 좋다.	

학교 및 참가단체 : 부평고등학교 원수영교사	이름 : 김수현
'돌이길' 할 결심을 정말 뻔. 정말 내가 쓴게 될 줄은 몰랐다. 그래도 덕분에 방향이 되기 도움을 줬다는, 그런 힘들고도 진중한 정감을 할 수 있어 좋았다. 솔직히 난 평시, 토론대회같은 건 꿈도 못 꾸는 소심한 놀아민 생각했다. 하지만 여기다서 내가 직접 손을 들고 발표를 하고 토론 사회자가 되기 말하느 모습을 보며, 스스로 많이 발전한 것 같아 매우 부끄럽다. 그리고 소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이 토론대회를 생활할 때 엄청 근심했었다. 여러 고민 끝에 겨우 신청서를 내밀고, 병화 네네 걱정하여 지냈었다. 그러나 막상 왔으니, 비록 조금 피곤한 했지만 정말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 경험을 계기로, 앞으로 전에 내가 하지 못하던 일들을 해볼 수 있겠지 같아 매우 뿌듯하다. 이 프로그램을 생활하라고 권해주신 쌤들, 저사쌤들, 지도선생님들, 그리고 같이 즐겁게 토론했던 모든 친구에게 감사한다.	

학교 및 참가단체 : 옥련여자고등학교 (에피스테메)	이름 : 김소연
인문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인문학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는 사실 그리 흔치 않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학교에서 인문학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모여 토론을 하니 평론 능력이 못했던 새로운 경험이라 색다른 기분이 들었다. 여러 주제로 토론을 하며 친구들과 나의 의견은 공유했고, 부족한 것은 보충하기도 하며 한층 성장한 나의 모습과 만족할 수 있었다. 총리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그리고 인문학적으로도 지식과 마음가짐이 성장한 기분을 맛볼 수 있는 좋은 만큼 감동스러운 기분이 들었다. 또한 작가님들이 인문학을 인상적이었어. 내가 이제 성장해서 못했던 복받까지 생애해주시는 작가님이 존경스러워서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참여하고 싶다	

한국 탈핵

학교 및 참가단체 :	안남고 2학년	이름 :	장더명
학교 입학생이 아주 많은 음향음이 생겼었는데, 저는 이 시설로 통해 작업 제정본에 결론을 하며 음향음은 해로운 수 있어 공평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정본에 결과 같은 것은 바탕으로 하여 아주 다양한 토론 주제 같은 결론은 도출해 내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더욱 비판적인 사고 가질 수 있었다. 이 현상은 해기 전에는 책에 대한 토론은 전혀 없었고 제정본에 대한 주제에 대해 의견은 조율하던 것에 있어서 부딪칠 사고도 있었지만 끝난 이후 다양한 형식의 토론을 했기에 더욱 재미있고 의견은 조율한 수 있었다^{있어서} 기뻐했다. 책에 대해 결론은 해주는 교육전문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특히 모든 것은 하나하나에 답변해 주고 훌륭한 길고름 교육법에 감명을 받았고 싶다. 정말 감사합니다!			

학교 및 참가단체 :	가림고등학교 어솔림	이름 :	백기원
'탈핵'은 사실 그다지 대중적이지 않은 분야이다. 한국에서 원자력은 발전소로서, 후쿠시마의 사고로써 유명하지만 놀라우리만큼 공론화되지 않았다. 원자력의 위험성과 탈핵은 원전사고 직후를 제외하면 구설수를 오르내리는 일은 없다. 이번 대회에서 평생들을 '원전'이라는 단어를 거의 90% 이상 듣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원전의 위험성, 탈핵의 필요성을 들으며 공론화 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동남 해안이 잠겨있는 보이지 않는 죽음을 그대로 두어도 되는가" 라고...			

학고 및 참가단체 : 박문여자^고등학교 ~ (파주시지회) 이름 : 김혜영

오늘 토론에 참가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 준비한 것을 다 활용할 수 있게 되어서 좋습니다. 특히 「한국 탕핵」에 대해 질문이 많았는데 그 답을 받을 수 있어서 의미가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그 중에 더 값진 경험은 책을 읽은 친구들과 여문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토론 또한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 탕핵」 뿐만 아니라 「공부중독」과 「이 위대한 사람들」에 대해 친구들과 토론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 P4. 김익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 탕핵」에 대해 주변분들에게 널리 알려 줘야겠다!!
→ 한국은 탕핵을 해부한다!!

학교 및 참가단체 : 안양고등학교	이름 : 안효재
에, 방담에서 저자분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유쾌하고 생각이 깊은 분들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한국말해'를 쓰신 김국룡 교수님께 강연을 듣고 질문을 한다는 것이었는데, 질문을 어떻게 할 만도리? 라고 생각했는데 같은 조원들과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서로 토론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질문도 어려움 없이 만든 것 같다. 그리고 '소통의 길'을 할 때, 서로 반박하고 경쟁적 말을 많았는데, 서로 배려도 잘하면서 재밌고 알찬 토론을 해서 즐거웠다. 즐겁다.	
나는 지금까지 이런 경험을 해본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을 통해서 내 생각을 말하고 상대방의 뜻을 경청하는 경험을 한 것 같아 정말 기쁘게 남을 것 같다. 정식	

학교 및 참가단체 : 계양고등학교	이름 : 임지수
물론 비경쟁 토론이어서 결론 재미있을 줄 알았는데 참어도 흥분하고 교수님 강 의도 재미있어서 좋았다. '한국탈핵'의 핵심 게이트가 강의에서 여러줄 줄 있었는데 교수님 강 의 덕분에 이해가 속속 되었다. 또한 다양한 질문을 만들면서 생각하는 힘도 기르게 되었다.	

학교 및 참가단체 : 계양고등학교 Gyeongju High School	이름 : 정성민
먼 처음으로 토론대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책을 읽고 여러가지 주제로 토론함으로써 생각하기, 듣기, 말하기에 자신감이 생겼게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강의 해주신 김익중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학교 및 참가단체 : 안양고등학교	이름 : 신동희
처음에는 이색해서 많이 못 했는데, 공동체 육으로 자연스럽게 같은 조원들과 친해졌다. 그래서 토론에서 편안하게 말할 수 있었다. 토론에서는 항상 질문을 만들었다. 제이 평소에 답만 생각했었기에 질문을 만들기가 쉬워 인양다. 그래도 조원 친구들과 머리를 모아 토론하다보니 좋은 질문을 만들 수 있었고, 답을 찾을 때 보다 더욱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소통의 길에서 다른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하니, 혼자 생각하던 것들이 더욱 구체적으로 됐다. 그리고 토론이 끝나니 열심히 배려한 상대방과 요런 친근감이 생긴 거 같다. 앞으로 이런 경험을 많이 겪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학교 및 참가단체 : 안양고등학교	이름 : 노주영
학교에서 가장하게 된 인문학 토론대회에서 처음에는 긴장을 많이 했지만, 복토로 시간을 가질 때부터 긴장을 풀고 즐길 수 있었다. 강의를 과감해서 참여해준 내용은 덕분에 의문점이 하나씩 해소되기 시작했다. 딱딱한 것만 같았던 토론 분위기를 서로 협력을 분위기라 뭐나 정도 긴장을 풀 수 있었다. '공감의 길'로 한 주제에 대해 같이 생각해보고 싶었고 '소통의 길'로 여러 사람들과 만나 의견을 존중으로써 서로 의견과 다른 비슷한 점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 이번 인문학 토론대회를 통해 여러 배려받을 수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이렇게 좋은 기회 자주 마련되면 꼭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 및 참가단체 : 계양고등학교	이름 : 현진환
비정형도론인 현진환 씨와 도론대회의 참가하면서 바쁜 일상 속에서 책을 읽을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을 수 있었고 회원들과 같이하는 도론을 통해 관공평, 원화상고, 생략은 읽을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도론 책을 읽고 공평책이나 다른 책을 저자들에게 직접 물어, 책속으로 들어있는 것들을 잘 이해할수 있었다.	

학교 및 참가단체 : 이화여자대학교	이름 : 이준서
도론대회까지 학교에서 도론을 하며 질문을 만들던 과정도 재밌고 뜻깊은 경험이었다. 라지엔 오늘도 더욱 즐거웠던 날이었다. 오늘 직접 한국탈핵여 자자이신 김익중 교수님께 강연도 듣고 질문도 하여 좋은 경험을 살을 수 있었다. 소통의 길에서도 평소 해보지 못했던 사회적 역할을 맡았는데/ 모르는 사람들과 도론을 하고 진행하면서 약간 힘들기도 했지만 즐거움 재미있었다. 다음번에도 기회가 있다면 다시 참가해보고 싶다.	

학교 및 참가단체 : 청소년 안락복지 센터 내일	이름 : 정현지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 다른 청소년들과 얘기를 나누고 토론하는게 정말 좋았고 서로를 의문들과 자기만의 생각들을 나눌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읽은 책의 저자를 만나 생각을 공유하고 이야기를 듣고 더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 나는 모든 생애에 대해 시련과 슬픔이 너무 많았고, 생애가 정말이라 공했다.	

학교 및 참가단체 : 배수고등학교	이름 : 장유민
책을 나눠 읽은 라지 저자의 의견을 생생하게 나누고 ^{현진환} 바쁜 일상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와 책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면서 책의 내용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과 교류를 통해 내 생각했던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특히 다른 학교 학생들과 함께 대해 토론하며 내게 생애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고, 큰 자라는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많은 학생들과 교류를 하고 이야기하면서 책이 정말 좋았다.	

학교 및 참가단체 : 가락고등학교 start up	이름 : 양은지
토론을 하면서 내 생각과는 다른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들 수 있어서 생각의 전환을 할 수 있었던 의미있었던 시간이 된게 같다. 오늘 하루 풀어서보니, 토론하면서 내 생각을 열정적으로 표현하는 내 자신을 보고 토론은 정말 재미있는, 평화적인 논쟁인것 같다. 특히, 소담의 글 중 '모든 대학 입학화, 초중고 교육 정상화'에 관해서 '토론했음'때, 배움에 경쟁은 글이 겹치지 않다는 점을 깨달은 것은 내 장래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부끄럽고, 보람 있었다. 나중에 (내년에)도 꼭 청소년 인문학 토론대회에 참가하고 싶다.	

학교 및 참가단체 : 청소년 인문학 도서관 dot112	이름 : 전해민
여기에 오기 위해 2달 전부터 신경하고 책을 읽었는데 읽는 동안 흥미롭고 힘들고 재미있었다. 모든 아침 7시에 일어나서 7시 이하로 모느라 피곤했지만 와서 공부할게 놀이하라고 재가인게 질문을 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궁금한점이 풀렸고 사람들끼리 토론하면서 내 생각들만 하는게 즐거웠다.	

학교 및 참가단체 : 청소년 인문학 도서관 내일	이름 : 차제성
책을 읽고 토론 한다는 것이 꽤 오랜만의 일이라 무척이나 긴장되고 신났었다. 정해진 책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많은 분야의 책에 도전하고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고 싶다. 처음 주 참여를 원 하고, 사회자라는 큰 자리를 맡아 부담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같은 '현상학'이라는 책을 읽고 같이 토론한 친구들에게 배운 점도 많고 느낀 점이 ^참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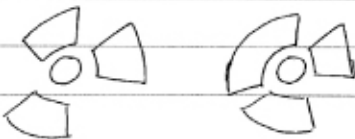
학교 및 참가단체 : 안남고등학교	이름 : 김예섬
내가 더욱 여러 분야로 지식을 쌓고 두뇌를 확장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 등으로면서 생계를 더 넓힐수 있었다. '한국판택' 교수님 말 등을 들으며 더욱 책에 대해서 읽는 것 보다 훨씬 쉽게 이해 할수 있었다. 나는 판택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는 못했지만 새롭게 생각해 볼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저자 분께 감사하며 공감을 할수 있어서 좋았고 이런 대화가 또 다시 있다면 다시 참가 하고 싶다. DHU 뜻깊은 시간이였다.	

학교 및 참가단체 : 인천 영수고등학교	이름 : 조 재 환
공미린 책들을 읽고 그 책의 저자 분들을 만나 뵈는 일에서 정말 좋은 시간이였다. 책의 저자인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고, 여러 책들다 책에서 발견한 주제에 대하여 토론 하면서 책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 더욱 깊어간 것 같다. 여러 주제들을 원서들과 토론 하며 모든 주제를 명료하게 내고, 또 그 주제 대하여 서로의 의견을 과감하게 말하는 시간들 बहुत 값이 있어있었다. 이번 인문학 토론 여행을 통해 사회적 용기에 대하여 깊게 생각하면서 여러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된 것 같고 내 의견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생겼다.	

학교 및 참가단체 : 안수고등학교	이름 : 김인지
나는 이 활동에 참여하면서 처음에 토론이라고 하면서 긴장을 많이 하였는데 반상 활동을 해보니 생각했던 것 보다 어렵지 않았고 강사님의 강의에 들으면서 책에 대한 내용도 듣고 큰 확신도 하면서 신이 되는 기분 의견을 조금 하니 도움이 되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책 별로 토론을 하면서 많은 아이디어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고 그 교수님 의견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였다.	

학교 및 참가단체 : 북원여자고등학교	이름 : 박서영
강장 9시간에 걸친 이번 토론회는 힘들기도 했지만, 얻어가는 것이 더욱 많았다. 즉, 나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 즉석 3권이나 한다는 것이 어떻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막상 읽고 나니 한국 사회의 현실이 더욱 타당했다. 부끄러운 사회라 비록 돈을 살면 점점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작가님들은 나에게 큰 공짜가 되었다. 나도 나중에 큰 쓰든가, 한들 내가 할까봐도 우리 사회를 조금이나마 되살려볼 것이라는 의지가 생겼다는 뜻이다. 나는 이번 기회가 나의 지식의 뒷걸음치 될 수 있는 것이라 믿는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소독의 잔대 방장 즉, 사회자를 맡은 것이다. 비록 음모 하위로 격되는 시간이었다. 다만 다른 여가사실들의 일을 들여보고 이에 대해 논의하여 한층가는 과정이 흥미롭게 느껴졌다. "아! 그렇게도 볼 수 있구나. 이 방법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 또한 해결책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순돌았다. 당시에 또 이러한 기분이 주어진다면 꼭 참가하고 싶다.	

학교 및 참가단체 : 가좌고등학교 - Start UP	이름 : 윤지현
다들 읽고 저가분들과의 만남을 많이 겪어 봤다면 김명준 교수님과 이은은 멘토를 좀 색달랐다. 거기에 가지고 있던 내 생각이 '한국대학'이라는 다들 들었는데, 이은은 더욱 구체화할 설명을 들으며 우리들 볼드도의 이해도 위험성에 대해 말할 수 있고, 주변 친구들에게 설명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집중력 있고 관심있게 강의를 들었다. 또한 탐해조의 사회를 맡으며 많은 학생들의 의견을 접할 수 있었고, 나의 질문을 논할 수 있었고 많이 들었다.	

학교 및 참가단체 : 안남고등학교 안남고등학교	이름 : 이자은
토론 대회에서 많이 배우는 중 많은 기대를 받고 있지만 생각과 다르게 재미있었던 것 중에는 대회 중점적으로 해 다루고 이해는 어려운 다수의 마지막에 새로운 주제를 찾아 넣는 것이라 예상치 못했습니다. 또한, 과학 김명준 교수님의 강의로 최후를 통해 또 5월 강의로 재미있었고 문득한 사건이 있었던 것 같다. 교수님의 제안에 자신 PPT로도 학교의 우리 연구한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수님과의 부딪힘은 매우 흥미를 많이 안겨주어 사용하겠습니다.	
	

학교 및 참가단체 : 연천 안4 고등학교	이름 : 이준형
경쟁한 녀들의 경합을 지켜본 느낌이었다. 경쟁한 시화법제까지 하는 제자리역까지 공부 아니라, 서로 소름하고 공부했어 대치하며 드론하는 과정 너무나 즐겁고 소름났다. "공부중독에 걸린 우리 나라가 할 법한 특장인가?" 본인은 국어로 개인의 경험, 미국의 사례, 구체적인 정보 등 혼자서는 도저히 떠올릴 수 없는 무궁무진한 생각들이 파도를 이루기 시작했다 사실 실질적으로 '외부'의 이가비 우리에게 오는 실질적인 이득은 많기끼, 다들 대충하고 많은까 의심이 있었는데, 모두가 최선을 다해 적절하면서도 격렬하게 논쟁을 이어가 모습은 마치 '민주사회'의 진정한 모습이 거울에 비친 듯 했다. 토론 부분 내리 사회와 삶에 대해 깊은 생각과 고민을 가진 친구들을 만났던 것이, 가장 소름하고 행복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학교 및 참가단체 : 서울고등학교	이름 : 백선희
처음인 걱정은 많이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즐겁고 뜻깊은 내용들도 가득 해서 만족하구가 보람있었다. 한국담임은 쓰신 '김익중'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땀에 대해서 더 확신이 생 겠고, 북마크 사강에 내 강문이 통해서 너무 좋았다. 그래서 방도 같이 먹고 방은 먹으면서 좋은 얘기들도 많이 해주셨다. 고리가 되면 인문학 토론대화에 한번더 참여하고 싶고, 고대 는 더 많이 읽고, 준비해서 이야기할 생각 했다. 토론 대회 책을 읽고 해서 경험을 하느라 아나라 이렇게 비평적 방식으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고, 생각하는게 보람있었다.	

학교 및 참가단체 : 안성고등학교	이름 : 박종우
토론대회에서 취지 많았던 책은 한국 사회에 있다. 저자 김익중 교수님은 탈북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갖고 계셨고 관련 지식도 많이 알고 계셨다. 많은 강연 경험 덕인지 강연은 이해가 잘 되었고 공감 갈 수 있는 내용이였다. 다른 기록도 들을 수 있는 플랫폼도 생겼어 좋다.	

학교 및 참가단체 : 서운고등학교

이름 : 신 하 룬

서울 역설 중 이렇게 책을 읽고 그 책에 완벽 오편하고, 직접 저자분이 있어서
생각도 밝히고 학생들끼리 이야기 나누는 것은 좋지않다. 책을 읽고 그 책에
관해 질문을 받는 것도 혼자서만 생각하고 말한 나는 이번 토론대회를 통해 나와 같이
흔치않는 일을 경험하게된 것 같아 너무 부끄럽고 좋았다. 특히 책을 읽고 그 내용에
완전 심연하게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공유하는 활동이 너무 좋았다.
난 이 부름에 관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니, 내 생각이
더 구체적으로 논리정연하게/ 정돈되어 머리 속에 정리되는 느낌이였다. 일상생활에서는 친구들과
이렇게 책에 대해 심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 ~~내~~ 활동을
하게되어 정말 여운 깊게 남았던 것 같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주제문을 하는 시간이 조금
부족했던 점이었다. 좀 더 길었다면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을 텐데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그래도 정말 부끄럽고 기분 좋았었다. 만약 이런 대회가 다시 찾아온다면, 꼭 다시 하고 싶다.

학교 및 참가단체 : 서운 / 끝장토론

이름 : 남유진

공부중독. 이외로운 사람들아, 한국탄핵을 읽고 하는 비정쟁토론대회가 듣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지 궁금했다 교수님과의 점심도 먹고 다양한 주제와
관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 조별로 질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도 이렇게나 다양한 생각들이 나올 수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다. 세 교수님 모두의 강연을 들은 수 없어서 아쉬웠지만 우리 반
강연을 해주신 김익중 교수님께서 아주 친절적으로 강연해주셔서 감명
깊게 들었던 것 같다. 오늘 내가 새롭게 알게 되고 배운 내용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학교에
돌아와 같이 갔던 친구들과 또 다른 활동을 구상해보고, 탄핵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다. 새로운 사람들과도 만나고, 내가 읽은 책의
작가님 소개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였다.

학교 및 참가단체 : 서문고

이름 : 이규빈

비평쟁 토론이란 것을 처음 접하고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두렵고 걱정됐다. 그러나 과제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나와 다른 이의 의견을 접하고 공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바음이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졌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들은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의미있고 나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더불어 작가님과의 만남으로 책의 글이었던 점을 소중히 여겨 해설한 부분과 질문을 제작하여 새로운 지식을 얻은 부분이 새로웠고 뜻깊었다. 오늘 배우고 본 것들을 통해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했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구성을 위해 참여하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학교 및 참가단체 : 가림고등학교, 어울림

이름 : 박진영

처음 책이 '한국전쟁'으로 선정되었다고 들었을 때는 과학관련도서라고 생각해서 책의 가치가 느껴졌다. 하지만 책은 읽으면서 이주제가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는,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김익중 선생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분노했고 여가 없었다. 딱 거기까지라고 생각했지만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여러 학생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내가 여기서 분노함이 끝이 아니라 안되었다고 느꼈다. 탈핵운동은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하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 기림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포스터든, ~~가~~ 반포든... 등 통해서 학생들이 이주제에 대해 알게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이번 시간은 나에게 있어 그저 지나가는, 형식적인 대회였지만 아니었다. 세교수님의 훌륭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নিজ 자신이 조금은 변화할 수 있게 된 계기라고 생각한다.

9 운영위원 소감문

구자순(청라고등학교 교사, 인천역사교사모임)

더 나은 대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운영위원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고 역할을 나누어 토론회를 준비하고 대회를 잘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보람, 대회날 인천 각지에서 모인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토론하고 자신의 의견을 또렷 또렷한 눈빛으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활기를 통해 느껴지는 뿌듯함, 먼 곳에서 인천의 학생들과 공유하고 싶은 어떤 것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와주신, 만나고 싶었던 저자들의 진심이 느껴지는 강의와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매년 인천 청소년 인문학 토론회를 있게 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강명관교수님 토론방에서 함께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교수님의 현재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역사와 연결지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방향 제시, 의견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 '어차피 안될텐데' 라는 것이 나쁜 생각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통해 현재를 생각해 보는 시간, 현재를 통해 역사를 생각해 보는 시간, 저도 여러분도 많이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김명순(인천예술고등학교 교사, 학교도서관을 사랑하는 사람들)

경쟁과 서열 그리고 차별로 가득한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생각으로 채워가야 하는지 길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인천 청소년 인문학 토론회'의 가장 큰 특징은 '비경쟁 방식의 독서토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생각과 생각을 모으고 지식과 지혜를 나누며 토론하는 열린 공간에서 그 길을 찾았습니다.

경청과 존중 속에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질문을 찾아가는 대화의 끝자락에는 우리 모두가 꿈꾸고 지향하는 세상이 잇닿아 있습니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나누는 아이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안미림(신명여자고등학교 교사, 학교도서관을 사랑하는 사람들)

작년 대회에 지도교사로 참석했고, 매력에 빠져 올해 직접 발로 뛰게 되었습니다.

상을 위해 경쟁하는 대회가 아닌,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진정한 '대회'를 통해 한층 아이들은 성숙해집니다.

저자를 직접 만나 질문하고, 친구들과 함께 주제에 대해 협력하여 토론합니다.

작은 교실을 나와, 세상을 향해 서둘지만 꼭 필요한 질문을 던지는 아이들을 보며 지금보다 행복해질 미래를 상상해봅니다.

더욱 많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다음 대회에 참여해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꿔보았으면 합니다.

이성희(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담당 장학관)

다름과 섞임, 그리고 희망의 길

다름입니다. 인천 곳곳에서 30개팀 120명의 청소년들이 모였습니다. 얼굴 생김새도 말씨도, 그리고 생각도 다 제 각각입니다. 오는 길이 달랐으며 가는 길도 다릅니다. 어색합니다. 두리번거립니다. 하지만 당당합니다. 120명, 한명 한명이 가진 빛을 봅니다. 숨겨진 빛, 하지만 그 밝음으로 인해 그 빛 새어 나옵니다. 2016년 8월 20일. 120개의 빛과 빛이 만나 각기 고유한 빛띠를 만들어 갑니다.

섞임입니다. 선택한 책에 따라 모둠을 만들고 그동안 꼭꼭 감추어 두었던 자신들만의 이야기보따리를 풀어 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만남을 만들어 갑니다. '세상에 질문을 던지다'. 120명의 청소년들이 3개월 동안 정진했던 화두입니다. 하나의 생각은 또 하나의 생각을 만들어 내며, 그 생각은 또 다른 생각의 실마리가 됩니다. 씨줄과 날줄이 모여 하나의 작품을 만들듯이, 생각의 나눔 속에 청소년들은 한 뼘 더 성장해 갑니다.

희망입니다. '2016 제 3회 인천 청소년 인문학 토론회'의 또 다른 이름은 희망입니다. 120명의 청소년들이 인천예술고등학교에서 분출했던 열정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은 다시금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생각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큰 바다를 향해하며 우리는 또 다른 생각의 육지와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2016 인천 청소년 인문학 토론회는 청소년들이 더 큰 생각의 바다로 나아가는데 튼실한 배가 되어 주리라 믿습니다.

이은주(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사무국장)

교육 현실에서 고등학생인 청소년들이 책을 읽고, 세상과 소통하며 생각을 나누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올해 '세상에 질문을 던지다'라는 주제로 인천 청소년인문학 토론회가 세 번째로 열렸습니다. 저자와 직접 만나 얘기를 나누고, 공감의 길, 소통의 길 시간에 모둠을 구성하여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나누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며 저자가 얘기했듯이 청소년들이 미래의 희망입니다.

평가회의까지 일곱차례 회의를 하면서 선생님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고, 이번에 준비를 같이 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내년에도 청소년들을 만나는 시간을 즐겁게 기다리며, 준비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유용(가좌고등학교 교사, 인천역사교사모임)

‘세상에 질문을 던지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2016 3회 인천 청소년 인문학 토론회》를 통해 청소년들을 보며 우리 사회의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외로운 사람들아』 저자이신 강명관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다양한 주제, 다양한 사회 문제에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학벌 위주의 사회 문제점, 공부와 스펙, 취업에 바쁜 청소년과 청년들, 외로운 사람들을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하려면? 등 세상에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나누며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 참가 학생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최근 경주 지역 지진으로 인해 한국탈핵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토론했던 내용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에서 나아가 실천하는 자세까지 검토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탈핵을 위해 우리 작은 목소리를 더 크게 내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토론회에서 더 많은 공감과 소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임성빈(계산고등학교 교사, 인천국어교사모임)

제작년 초, 이성희 선생님이 강원도나 김해시에서 비경쟁 방식의 청소년 인문학 독서 토론회를 열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인천에서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인천 국어 교사 모임에서도 같이 하는 것이 어떠하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인천에서 번듯한 비경쟁 방식의 인문학 청소년 토론 대회가 없다시피 한 때였고, 이것을 인천 지역의 시민 사회 단체와 교사 모임이 함께 손을 잡고 추진한다는 것이 마음에 들어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토론 대회 방식이 통상 우리가 경험했던 토론 방식과 달라 그 절차를 이해하는 데 애를 먹었고, 우리 모임뿐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이런 성격의 대회를 처음 준비해보다보니 축적된 경험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시행 착오를 일으켰으며, 또한 각자가 그리는 대회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 그것을 토론을 통해 맞춰 나가는 과정도 쉽지않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쳇말로 “맨땅에 헤딩”을 해나가면서 드디어 인천대학교에서 연 첫 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두 해 동안의 소중한 경험 덕택에, 올해 인천 청소년 인문학 토론회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센터에 강 선생님 대신 이은주 선생님께서 오시고 첫 두 대회를 준비했던 분들 대신 다른 분들이 많이 처음 참여하시면서 실무적인 일처리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대신 새로운 얼굴들이 새로운 관점에서 대회를 준비하는 모습이 신선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대회가 입소문을 타면서 대회 참가 신청을 한 학교들이 많아 예선 심사를 첫 두 대회와 달리 정말 글자 그대로 예선 심사답게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처음에 인천 청소년 인문학 토론회를 하려고 했을 때, 이 새로운 성격의 행사가 과연 인천에서 순조롭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 완전히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 지역 청소년의 인문학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장으로 자리잡았다는 데 매우 큰 보람을 느낍니다.

첫 해에 어느 정도 틀을 잡아 놓은 것이 있었고 센터의 강 선생님, 이강련 선생님과 이성희 선생님을 중심으로 첫 대회를 준비했던 분들이 거의 그대로 있어, 작년 행사의 실무적인 진행은 전년도 보다 수월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생각지도 않게 재정적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제2회 대회를 치르는 데 필요한 돈을 확보하지 못하여 큰 어려움에 부딪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회를 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출 항목을 뽑아내 이를 집행하고, 토론 대회에 참여하는 각 단체들이 십시일반으로 예산을 각출하는 등의 노력을 한 끝에 겨우 대회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재작년에는 인천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인천대학교 교정에서 행사를 열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교육청 가까이 있고 교통도 편한 인천예술고등학교에서 대회를 치를 수 있었던 것은 소독이었습니다.

정지은(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팀장)

작은 움직임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운영위원으로 준비하신 분들과의 면밀한 준비과정, 행사당일 학생들의 토론모습 모두 다 좋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각 지역에서도 이런 비경쟁토론 대회나 모임이 빈번하게 생활 속에 자리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며 질문도 던지고 좋은 변화도 이끌어보는 경험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축제를 준비하신 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무척 반가웠습니다^^

이런 좋은 것은 지속가능하게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허우정(구산중학교 교사, 학교도서관을 사랑하는 사람들)

학생들과 『한국탈핵』과 핵관련기사들을 찾아 읽고 김익중 교수님 보았습니다. 세계 핵 산업의 동향과 대안에 너지 그리고 너무나 자명한 탈핵을 해야 하는 이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벌여놓은 핵산업으로 인해 치러야 할 무한한 댓가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핵산업의 현실과 진실을 알았으니 포털과 SNS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게 된 진실을 알리는 노력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의로운 선택임도 배웠습니다. 뜨거웠던 여름 김익중 교수님과 우리 학생들의 더 뜨거운 열정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여름 후 9월, 1978년 계기지진 관측이 시작된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이 경주일대를 뒤흔들었습니다. 몇 차례의 강진과 여진의 반복에 놀라고 지금당장 스스로의 안위를 걱정하는 우리들을 봅니다. 눈앞의 재난이 걱정도 그치지 않고 지금 당장 탈핵의 출발이었으면 합니다.

『2016 3회 인천 청소년 인문학 토론대회-‘세상에 질문을 던지다’』를 계기로 『한국탈핵』, 『탈핵이야기』를 도서관 대출대에 전시하며 서가에 꽃을 여유 없이 교사와 학생들에게 추천하며 대출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건강한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해 학생들과 함께 부지런히 책 수다를 떨어봅니다.

역사를 잘 보존하고 정리하는 것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인천지역 민주화운동 자료를 수집합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5.18기록물 중에서 가장 큰 빛을 발한 것은 개인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긴 일기장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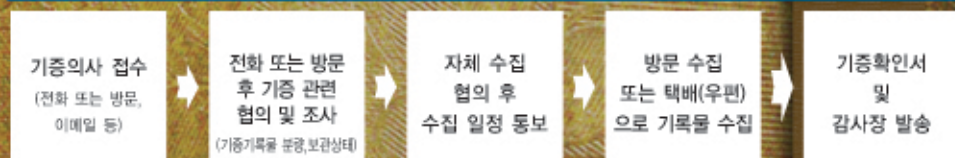
장릉 김숙이 보관하고 계시는 소중한 기록물이나 개인 소장 자료를 저희 센터에 기증해 주시면 항온 항습 시설을 갖춘 환경에서 보존됩니다.

또한 민주·평화·인권교육 자료나 연구 활동에 널리 활용되어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우리 민주주의 역사를 더욱 풍부하게 합니다.

기 증 자 료

문 건 사 료	박 물 사 료	멀티미디어자료	구 술 사 료	도 서 류
단체의 성명서, 자료집, 간행물, 회의록, 보고서, 팸플렛, 일기, 재판자료 등	현수막, 포스터, 메달, 의상, 그림, 걸개그림, 깃발, 배지, 현수막 등	오디오, 비디오, 사진, 슬라이드 필름, CD, DVD 등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 및 사건의 구술기록	민주화운동 관련 도서 및 간행물 등

기 증 절 차





- 주소 : 우.22154 인천 남구 경인로 334-17, 1층
- 전화 : 032-862-5353 ● 전송 : 032-862-5352
- 이메일 : idph@hanmail.net ● 홈페이지 : www.idph.kr
- 퍼낸이 : 조성혜 ● 퍼낸곳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 발행일 : 2016년 11월 7일